***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의 구성!
***김정일**장군님을*
통일대통령으로!

통일아리랑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

2002년 3월 21일 목요일 ≪**통일아리랑**≫**편집위원회** 49호

우리 땅을 전쟁터로 만들 수 없다

한미군사훈련 반대 합동기자회견

≪우리 땅을 전쟁터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가 잿더미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종렬전국연합상임의장은 여느 때와는 달리 단호한 목소리로 기자회견의 취지설명을 짧게 마쳤다.

20일 낮 12시 광화문 미대사관 옆에서는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 주최로 700여 시민, 사회단체들이 전쟁연습 한미군사훈련 반대 합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인사말을 통해 홍근수자통협상임대표는 ≪내일부터 있을 한미합동군사훈련은 북한을 가상적으로 하는 전쟁연습≫이라고 규정하고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불러일으킬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이김현숙상임대표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은 교착된 남북관계를 얼어붙게 하고 6.15공동선언으로 이루어진 민족의 화해와 통일의 기회를 무산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기자회견문은 ≪부시정권이 이북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면 군사훈련이 아니라 제네바협약과 북미공동성명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한반도 공멸을 불러일으키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후 한상렬통일연대상임대표는 ≪내 나라 내 땅에서 핵전쟁연습이 웬말입니까 란 제목의 호소문을 낭독하고 미대사관 앞에서 20일부터 27일까지 7박 8일 동안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호소문에서 한상렬상임대표는 ≪부시 정권의 등장이후 미국은 사사건건 우리 민족의 공존공영 분위기를 파탄내고 한반도에 전쟁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규탄한 뒤 ≪미국이 패권적 야욕을 계속 앞세운다면, 그토록 바라는 북한에 대한 고립압살은커녕 남한에서까지 설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상렬상임대표는 ≪우리 민족은 반만년 역사동안 남을 침범한 적도 없지만, 외세의 침범을 수수방관한 적도 없다≫며 ≪이러한 민중의 염원을 가슴에 안고 건강과 모든 열정을 바쳐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막아낼 것≫이라 호소했다.

한미군사훈련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움직임은 오늘 합동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7일까지 단식농성, 1인시위, 해상시위, 훈련장시위 등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편, 한미연합사령부는 연인원 50만명이 참가하는 증원군의 인수, 대기, 전방이동, 주둔군과의 통합작전을 위한 군사훈련과 독수리합동군사훈련을 3월 21일부터 27일까지 병행진행한다고 지난 2월 28일 밝힌 바 있다.

장동렬기자
통일뉴스 2002/03/20

≪≪아리랑≫ 축전 관람 민주노총 참가단≫ 조직

2002년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 사업계획에 의거, ≪≪아리랑≫ 축전 관람 민주노총 참가단≫을 아래와 같이 조직합니다.

1. 사업취지

미국과 부시정권의 노골적인 내정간섭과 핵전쟁위협으로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그러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의지는 4월29일부터 시작되는 ≪아리랑≫축전에의 대규모 참가 노력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의 웅장한 집단 예술행사로 개최되는 ≪아리랑≫축전에 질서있고 대규모적인 참가단을 조직함으로써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우리 민족의 의지를 세계만방에 과시하고 남북노동자들간의 단결과 연대를 대중적으로 강화해 나가는데 앞장선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아리랑≫축전 관람 민주노총 참가단≫을 조직한다.

2. 참가단 조직 지침

▷ **행사명칭**: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관람 등.
▷ **축전기간**: 2002년 4월 29일부터 6월29일까지
(1일1회 공연, 총 54회 공연).
▷ **장소**: 평양능라도 5.1 경기장.

1) 아리랑 축전 관람 민주노총 1차 참가단 조직화.

– 2002년 4월 13일까지 각 연맹, 지역별 참가신청서 중앙으로 취합

6) 당국의 방북승인절차가 불가피한 현재의 조건과 미국 부시의 의도적인 정세 긴장을 주동적으로 완화시켜 내기 위한 이번 방북의 정세 상의 특징을 감안, 참가단 일부의 불허 시에도 방북 승인자를 중심으로 참가단을 재편성, 기층 조합원 동지들의 방북 염원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7) 단, 미국 부시의 대북 핵공격 위협, 대규모 한미군사훈련, 내정간섭 등으로 인해 정세 긴장이 더욱 고조되었을 시에는 ≪아리랑≫축전 관람 자체가 아예 불가능해질 수도 있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2/03/20

통일연대, 대북강경발언 이회창 규탄

통일연대는 14일 ≪대북강경발언 한반도긴장유발 한나라당 총재는 각성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지난 1월 미국을 행각해 대북강경발언 등으로 사회각계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이회창이 이번에는 일본에 가서 북의 대량살상무기니 상호주의니 하고 떠든데 대해 비난했습니다.

성명은 미국의 핵공격전략으로 말미암아 핵전쟁위험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때에 일본을 행각해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아부한 이회창의 반민족적 행위를 지켜보면서 뼈저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이회창이 계속 민중의 지향을 왜곡하고 민족분열을 획책한다면 대중들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성명은 이회창은 국민들속에 확산되고 있는 한반도평화위협, 미국에 대한 분노, 미국과 공조해 한반도전쟁위협에 혈안이 되고 있는 일본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음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91, 3월 19일

지면안내

2 노작
• 일본 정치리론잡지 ≪세까이≫편집국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3)

4 세기와더불어
• 4장 7절 1930년 여름 (1)

6 칭송
• 무한한 헌신성
• 햇살들의 노래
• 민중이 우러르는 영도자

7 구국의 소리
• 미국, 미사일요격시험 실시
• 구국의 소리 뉴스 – 3월 19일
• 부산미문화원방화투쟁의 운동사적 의미
• 진짜 악의 근원을 들어내자

9 조선중앙방송
• 주체 91, 3월 19일 보도
• 일본집권의 ≪혁신정치≫는 위험한 전쟁정치

11 평양방송
• 자강도를 온 나라의 본보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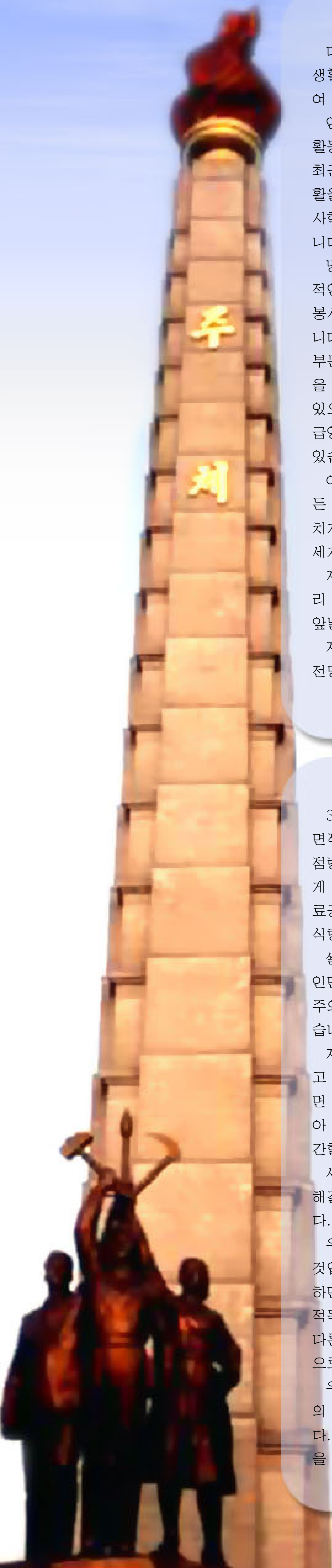
12 아리랑뉴스
• 한미군사훈련 반대 합동기자회견
• F–15K 전투기 도입반대 2차 집중투쟁
• 한총련 합법화 사회인 대책위 발족
• 국정원 해체! 국가보안법 철폐! 통신검열 반대!
• 노무현 20% 이상 격차로 이회창 눌러
• 위기맞은 ≪이회창 대세론≫
• 미 AP통신사 등 ≪아리랑≫ 공연 연습 참관

15 운동강좌
• 전체 청년학생운동대오의 통일단결에 대하여 (3)

16 조국통일3대헌장
• 민족대단결과 그 구심점 (6)

일본정치리론잡지≪세까이≫편집국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노작 - 주체74(1985)년 6월 9일



다음으로 당신이 우리 나라에서의 인민생활향상문제와 경제발전의 전망에 대하여 물었는데 그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고 있는 우리 당은 최근에 인민들에게 더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경공업혁명과 봉사혁명을 수행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당의 방침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는 현대적인 경공업공장들이 많이 일떠서고 편의봉사시설들이 대대적으로 늘어 나고 있습니다. 경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일용필수품생산을 늘이고 그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이 힘 있게 벌어 지고 있으며 근로자들에 대한 상품공급과 사회급양, 편의봉사사업이 날을 따라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제 몇해만 더 지나면 우리 나라의 모든 상점들에 질 좋은 갖가지 상품이 차념치게 되고 우리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은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서게 될것입니다.

자립적토대우에서 끊임없이 발전하는 우리 나라의 경제는 오늘의 형편도 좋지만 앞날의 전망은 더욱 휘황합니다.

지금 우리의 경제부문 일군들은 새로운 전망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전망계획기간에 당 제6차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는 가까운 앞날에 한해에 전력은 1, 000억키로와트시, 석탄은 1억 2, 000만톤, 강철은 1, 500만톤, 유색금속은 150만톤, 세멘트는 2, 000만톤, 화학비료는 700만톤, 천은 15억메터, 수산물은 500만톤, 알곡은 1, 500만톤을 생산하며 10년동안에 30만정보의 간석지를 개간하는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가 실현되면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결정적조건이 마련되게 될것이며 우리 나라는 경제발전에서 세계적으로 앞선 나라들의 대렬에 당당히 들어 서게 될것입니다.

우리가 새 전망계획기간에 수행하여야 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는 매우 어렵고 방대한 투쟁과업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목표를 능히 실현할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닦아놓았으며 강력한 과학기술력량을 꾸려놓았습니다.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투쟁기세도 매우 높습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새 전망계획기간에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가 성과적으로 실현되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습니다.

우리는 새 전망계획기간에 경제건설의 중심을 채취공업과 철도운수를 앞세우고 동력기지를 강화하며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인민경제의 현대화를 실현하는데 두려고 합니다. 우리는 새 전망계획기간에 탄광, 광산들을 대대적으로 개발하고 철도의 통과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수력발전소건설을 위주로 하면서 여러가지 동력자원에 의거하는 발전소들을 많이 건설하려고 합니다.

또한 새로운 과학분야를 개척하며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생산에 받아 들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경제의 전반적기술장비를 현대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30만정보의 간석지를 개간하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리려고 합니다.

부침땅면적이 제한되여있는 우리 나라에서 간석지를 개간하는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알곡 정보당 수확고는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정보당 수확고를 지금보다 더 높이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알곡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려면 부침땅면적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합니다.

30만정보의 간석지를 개간하여 부침땅면적을 늘이면 1, 500만톤의 알곡고지를 점령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인민들에게 식량을 충분히 공급해 줄수 있으며 식료공업도 다양하게 발전시킬수 있습니다. 식량을 자급자족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쌀은 곧 사회주의이며 공산주의입니다.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원만히 풀어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다의 령선계선에 뚝을 쌓고 간석지를 개간하고 있는데 경험을 쌓으면 앞으로 물깊이가 더 깊은 곳까지 내막아 간석지를 50만~100만정보까지도 개간할수 있을것입니다.

새 전망계획수행에 필요한 자금문제를 해결하는데서 기본은 자력갱생하는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외자를 받아 들이지 않을것입니다. 외자를 받아 들여 경제를 건설하면 예속경제가 되고맙니다. 나라의 정치적독립뿐아니라 경제적독립도 중요합니다. 다른 나라에 경제적으로 예속되면 정치적으로도 예속되기 마련입니다.

우리 나라는 남조선과 같이 500억딸라의 빚을 걸머진 나라로 되지 않을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빚을 지면서 ≪고도성장≫을 하는것은 재미 없습니다. 우리는 경제건설에서 외자를 받아 들여 단번에 높은데로 뛰여 오르려고 하지 않으며 자체의 힘으로 한계단한계단 착실히 톺아오르려고 합니다.

우리 나라에 많이 매장되여 있는 연, 아연, 동, 금, 은을 비롯한 유색금속을 캐서 다른 나라에 팔면 새 전망계획수행에 필요한 자금문제를 능히 자체로 풀수 있습니다.

경제건설에서 우리에게는 물론 난관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을 많이 하는 과정에 생긴 난관입니다.

당신이 남포갑문건설장에 가보아서 알겠지만 그 공사는 규모가 매우 방대한 공사입니다.

우리는 남포갑문건설을 올해 10월 10일까지 기본적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방대한 규모의 공사를 자체의 힘으로 빠른 시일안에 끝낸다는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얼마전에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어떤 나라 사람은 그처럼 큰 갑문을 건설하면서 왜 널리 선전하지 않는가고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직접 와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대규모의 갑문을 자체의 힘으로 건설한다는것을 잘 믿지 않을것입니다.

남포갑문을 건설하면 강하천운수를 발전시킬수 있을뿐아니라 간석지물문제를 완전히 풀수 있습니다.

경제건설을 잘하려면 자기 나라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는것과 함께 세계 여러 나라들과 경제기술적교류와 협조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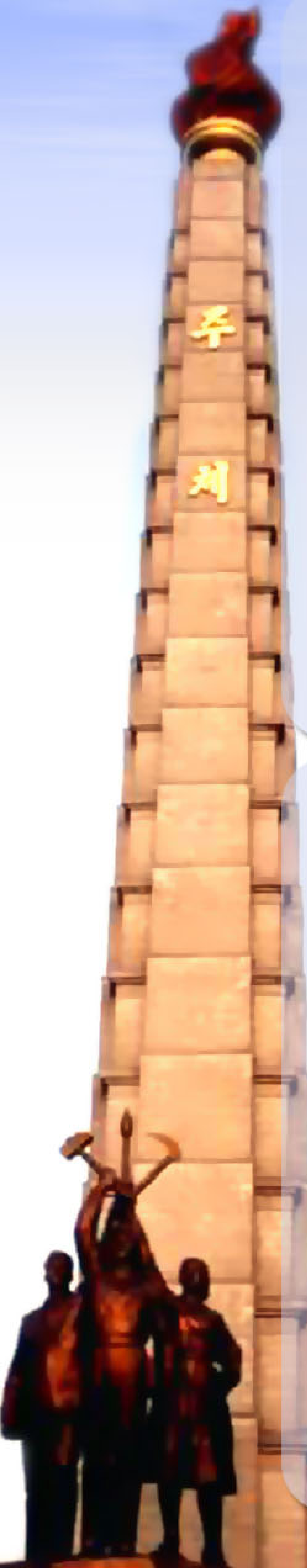
우리 공화국은 사회주의나라들뿐아니라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자본주의나라들과도 경제기술적교류와 협조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기술적교류와 협조를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지난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합영법≫을 채택하고 공업과 건설, 운수, 과학기술, 관광업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합영을 장려하고있습니다. 합영법이 발표된 다음 많은 나라들에서 우리 나라와 경제합작과 기술교류를 진행할것을 새롭게 요구해나서고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며 우리 나라와 경제기술적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킬것을 요구하는 나라들에 대하여서는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에 관계없이 언제나 환영할것이며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경제적 합작과 교류를 진행하여 나갈것입니다.

다음으로 당신이 조국해방 40돐을 맞으며 내가 제일 가슴깊이 생각하는 문제가

우리는 단일한 우리 민족이 두개 민족으로 갈라 지는것을 용납할수 없으며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대에 조국을 통일하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방향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대에 조국을 통일하지 못하면 대를 이어 가며 투쟁하여 김정일시대에 가서라도 반드시 조국을 통일할것입니다.



무엇인가고 물었는데 그에 대하여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우리 인민은 올해에 조국해방 40돐을 뜻깊게 맞이합니다. 조국해방 40돐을 맞으며 전체 인민이 높은 정치적열의로 들끓고 있으며 온 나라가 환희에 넘쳐 있습니다.

전체 인민이 들끓고 온 나라가 환희에 넘쳐 있으니 나의 마음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조국해방 40돐을 맞으며 내가 가슴속깊이 생각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혁명의 길에 나설 때 품었던 뜻을 아직 완전히 이루지 못하였다는 그 문제일것입니다.

우리 아버님은 나에게 대를 이어서라도 반드시 조선을 독립해야 한다는 유언을 남기시였습니다.

나는 10대의 어린 나이에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고 도탄속에서 헤매이는 겨레를 구원하며 삼천리강토우에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 념원을 안고 항일혁명의 길에 나섰습니다. 우리의 투쟁행정에는 난관도 많았으며 가슴 아픈 희생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항일혁명은 간고한 투쟁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체의 힘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이겨 내면서 20성상 굴함없이 싸워 마침내 조국광복의 력사적 위업을 성취하였습니다.

나라의 해방을 맞이한 삼천리강산은 기쁨으로 설레였고 온 겨레가 감격으로 들끓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민의 해방의 기쁨은 오래 가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나라는 해방후 인차 외세에 의하여 인공적으로 분렬되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우리가 산에서 풍찬로숙하면서 싸울 때 조국이 광복된 다음에 나라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삼천리금수강산이 한지맥으로 잇닿아 있고 예로부터 한강토에서 살아온 단일민족이 어떻게 둘로 갈라 지리라고 생각할수 있었겠습니까.

해방후 나라와 민족의 분렬은 새 민주조선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많은 난관을 조성하였으며 나라의 통일적발전을 저애하였습니다.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데 대한 우리의 념원은 나라의 절반땅에서밖에 실현되지 못하였으며 조국광복회10대강령과 해방직후 발표한 20개조정강도 공화국북반부에서밖에 실현되지 못하였습니다.

조국해방 40돐을 맞이하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지난 40년은 세기적인 진보와 번영의 40년이였으나 전민족적견지에서 본다면 민족분렬의 고통을 겪으며 살아 온 불행의 40년이였습니다. 나는 나라를 통일하여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지 못하고있는데 대하여 언제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해방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40년동안 어느 하루도 나라의 분렬에 대하여 잊은적이 없으며 우리 인민들이 겪고 있는 민족분렬의 고통을 덜어 줄데 대하여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참으로 지난 40년동안 우리는 갈라 진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은 아직 이렇다할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분렬이 지속될수록 우리 인민들이 겪는 불행과 고통은 더욱 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전이라도 갈라 진 겨레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하여 북남적십자회담을 마련하고 그것을 성과적으로 진척시켜 흩어 진 가족, 친척들이 서로 자유래왕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북남쌍방이 인도주의와 민족적리익의 견지에서 진지하게 협의한다면 조국이 통일되기전이라도 북과 남으로 흩어 진 가족, 친척들의 고통을 덜어 줄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북과 남이 서로 문을 열고 자유래왕을 실현하면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도 앞당겨 올수 있을것입니다.

물론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의연히 많은 난관과 애로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일한 우리 민족이 두개 민족으로 갈라 지는것을 용납할수 없으며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대에 조국을 통일하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방향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대에 조국을 통일하지 못하면 대를 이어 가며 투쟁하여 **김정일**시대에 가서라도 반드시 조국을 통일할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김구에 대하여 이야기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그에 대하여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김구는 어린 시절부터 황해도에서 산 사람입니다. 그는 해방전에 ≪상해림시정부≫에 있으면서 많은 공산주의자들을 살해한 이름난 반공분자였습니다. 그때 공산주의자들은 김구라고 하면 치를 떨었습니다.

해방후 남조선에 돌아 온 김구는 자기의 서기를 통하여 나를 만나고 싶다는 편지를 보내여 왔습니다. 나는 김구의 서기에게 그와 만나는것을 환영한다고 말하여 주었습니다. 김구는 나를 만나기 위하여 북조선에 들어 오기전에 자기의 서기를 다시 들여 보내여 지난날의 자기의 죄과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것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난 날의 일은 다 백지화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김구는 1948년 4월에 38선을 넘어 북조선에 들어왔으며 우리가 소집한 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였습니다.

남북련석회의에는 남조선에서 리승만의 직계정당을 내놓고는 거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대표들이 참가하였습니다.

그때 나는 김구와 여러번 만나 담화를 하였습니다.

김구는 나에게 지난 날 자기들이 중국 상해에서 말공부질만 하고 있을 때 장군님께서는 손에 무장을 들고 싸워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였다고 하면서 자기가 공산주의자들을 잘 모르고 반대하였는데 그에 대하여 용서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북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지난 날 자기가 보아 온 공산주의자들과는 다르다고 하면서 당신들과 같은 공산주의자들과는 손을 잡고 조국통일을 위하여 함께 투쟁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김구는 남북련석회의에서 연설도 잘하였습니다.

김구는 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고 남조선으로 다시 나갈 때 나에게 말하기를 북조선에 있고 싶으나 내가 여기에 남아 있으면 반동들이 북조선에서 나를 억류하였다고 할것이다, 그러니 도로 나가야 하겠다, 남조선에 나가서 민족의 대단결을 위하여 투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나에게 몇가지 부탁할것이 있다고 하면서 남조선에 나가 투쟁하다가 정 곤난하면 다시 오겠으니 여생을 보낼수 있게 과수원이나 하나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늙었지만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서 종이와 붓을 선물로 달라는것과 남조선 연백벌농민들에게 관개용수를 다시 보내주었으면 좋겠다는것을 제기하였습니다. 나는 그의 요구를 다 들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남조선에 나가 투쟁하다가 다시 들어 오면 과수원을 가꾸면서 여생을 편안히 보낼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공부를 하겠다는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량심적으로 일하겠다는 뜻으로 알고 종이와 붓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또한 연백벌농민들이 요구하는 관개용수도 다시 보내주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김구는 남조선에 돌아 간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암살되였습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 그를 살해한것 같습니다.

당신이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이만큼 말하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적극 활동하여 온 당신이 앞으로도 우리의 영원한 벗으로서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위하여 함께 싸워 주기 바랍니다. (끝)

2권 제4장

새로운 진로를 탐색하던 나날에

1. 손정도목사
2. 준엄한 봄
3. 카륜회의
4. 첫 당조직-건설동지사
5. 조선혁명군
6. 혁명시인 김혁
7. 1930년 여름
8. 두만강을 건너
9. ≪리상촌≫을 혁명촌으로
10. 잊을 수 없는 사람들

7. 1930년 여름 (1)

엠엘파계열의 종파분자들은 5.30폭동의 실패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1930년 8월 1일 국제반전일을 전후하여 길돈철도연선지방을 중심으로 또 다시 무모한 폭동을 일으켰다.

폭동으로 하여 우리 혁명앞에는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였다. 5.30폭동후 지하에 깊숙이 들어가 있던 얼마되지 않는 조직들마저 적들앞에 노출되였다. 우리가 감옥에서 나와 사방으로 다니면서 가까스로 수습해놓았던 조직들도 재차 타격을 받고 파괴되였다. 만주각지에서 우수한 지도핵심들이 무리로 붙잡혀 처형되였다. 적들은 공산주의를 헐뜯고 공산주의운동을 탄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구실을 얻게 되였다.

이 폭동이 일제의 민족이간책동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었는가 하는 것은 구태여 언급할 필요가 없다. 두 차례의 폭동때에 조선사람들이 중국사람들앞에서 그만 신용을 다 잃었다. 그후 우리는 유격투쟁을 통하여 그 신용을 어렵게 회복하였다.

동만의 조선사람들은 8.1폭동까지 겪고 나서 좌경모험주의가 얼마나 위험한가하는 것을 점차 심각히 깨닫기 시작했으며 대중을 무모한 폭동에로 내모는 종파사대주의자들을 불신과 경계의 눈으로 보게 되였다.

우리는 지체없이 폭동이 휩쓴 지역들에 공작원들을 파견하여 혁명군중이 종파분자들의 선동에 더는 속아넘어가지 않도록 하였다.

나도 길림을 거쳐 돈화쪽에 가서 얼마동안 조직을 수습할 작정이였다.

길림에 가니 거기도 5.30폭동직후처럼 분위기가 이만저만 살벌하지 않았다.

나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변장을 해가며 조직에 관계했던 사람들을 찾아다니였다.

길림의 역과 성문, 도로교차점들이 모두 적들의 검문초소로 되고 있었다. 일본영사관 밀정들도 거리를 싸다니면서 조선혁명가들을 색출하였다. 민족주의운동이 막판으로 기울어지고 있던 시기여서 이 무렵에 와서는 안창호 사건때와 같이 독립군영감들의 뒤를 쫓아다니지 않고 공산주의운동을 하는 청년들을 잡으려고 곳곳에 그물을 쳤다.

길회선철도부설반대투쟁으로 끓어번지던 길림시내에서 오늘은 낯익은 얼굴들을 찾아보기 힘들구나하는 생각에 분하고 원통한 생각을 금할 수 없었다.

동무들은 나와 헤어질 때 길림에 들리더라도 오래 지체하지 말고 인차 해룡이나 청원같은 곳으로 가라고 권고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길림을 쉽사리 떠날 수는 없었다. 혁명을 새롭게 개척해보겠다고 만 3년동안이나 낮에 밤을 이어가며 심혈을 바치던 생각을 하면 다른 고장으로 선뜻 발길을 돌리게 되지 않았다. 내가 길림에서 감옥살이까지 하면서 혁명을 위해 고생하지 않았다면 이 도시에 그처럼 큰 애착을 가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사람은 자기가 심혼을 바친 것만큼 그 고장을 사랑하는 법이다.

다행히도 공청사업을 하던 동무를 한명 만나 몇몇 조직성원들의 행처를 알아낼 수 있었다. 그들을 한자리에 불러다놓고 적들앞에 조직성원들을 더는 노출시키지 말며

길림시가

길림소년회나 류길학우회와 같은 합법적 조직들도 당분간 지하로 들어가라고 지시하였다.

카륜회의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도 논의하였다. 파악이 있는 동무들에게는 혁명조직을 수습할데 대한 임무를 주어 활동지역들에 떠나보냈다.

나도 길림을 떠날 생각이였다. 내 앞에는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았다. 길림의 일을 대강 수습해놓고나니 동만쪽으로 나가면서 파괴된 조직들을 복구하고 싶은 욕망이 불같이 일어났다.

나는 청원이나 해룡쪽에 가서 당분간 중국동무들의 집에 숨어있다가 적들의 피해를 많이 받은 고장들을 돌아다니며 폭동의 후과를 가셔볼 생각이였다. 해룡과 청원방면에 가면 카륜회의가 있은 후 한번도 보지 못한 최창걸이와도 련계를 가지고 그와 함께 남만으로 가는 통로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라고 타산하였다. 이 일대를 류하와 함께 최창걸의 활동구역이였다. 최창걸은 류하, 해룡, 청원일대를 왔다갔다하면서 기층당조직을 내오고 공청과 반제청년동맹을 비롯한 여러 가지 대중조직들을 확대해가고 있었다. 당시 이 지역의 혁명운동은 국민부파와 반국민부파의 대결로 심한 진통을 겪고 있었다. 그런 때에 8.1폭동의 여파까지 미쳐 혁명조직들이 무더기로 파괴되였다.

해룡과 청원사이에는 내가 잘아는 길림시절의 동창생이 한 명 있었다. 유격대초창기 우리 부대가 있다가 남만원정이 있은 후 집으로 돌아간 중국동무였다. 그 동무의 집에 얼마동안 가있으면 그 사이에 백색테로선풍도 좀 가라앉을 것같고 그러면 나도 위험한 고비를 무난히 넘길 수 있을 것 같았다.

길림을 떠나는 날 몇몇 여동무들이 나를 역에서 전송하였다. 부자집따님들처럼 옷을 멋지게 차려입고 나와 바래다주니 나는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고 무난히 차에 오를 수 있었다. 군벌들은 그때까지만 하여도 신사들이 공산주의운동같은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나는 그때 길림본역으로 차를 타지 않고 적들의 경계가 덜 미치는 변두리역에서 차에 올랐다. 그런데 차칸에서 뜻밖에도 장울화를 만났다.

장울화는 심양으로 공부하러 가는 길이라고 하였다. 심양으로 가기전에 혁명할 길이 없겠는가 의논하려고 나를 찾아 길림에 갔던 것인데 가보니 살풍경이더라는 것이였다. ≪알만한 조선사람들은 다 숨고 눈에 보이는 것은 군경이 아니면 왜놈개들뿐이더라. 성주를 만나러 갔는데 만날 수는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 심양으로 가는 길이다≫하면서 나를 다짜고짜 자기가 자리잡은 1등칸으로 데리고 갔다. 그도 내가 테로를 피해 숨어 다니는 몸이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따라 순사들은 승객들에 대한 단속을 심하게 하였다. 출입문은 모조리 봉쇄해놓고 차에 오르는 사람들의 신분을 일일이 조사하였으며 어떤 승객들에 대해서는 소지품고 보따리까지 사정없이 뒤져보았다. 검표원들도 그날은 다른때보다 류달리 엄격하게 차표조사를 하였다. 8.1폭동의 후유증이 도시나 촌락 뿐 아니라 열차에까지 미치고 있었다.

장울화의 도움으로 나는 해룡역까지 무사히 갈 수 있었다. 순사들이 승객들에 대한 조사를 살벌하게 하였지만 중국신사복을 쭉 뽑아입은 장울화한테는 감히 말도 걸지 못하였다. 나도 장울화와 같이 앉아있다나니 순사들의 조사를 받지 않았다. 검표원들은 차표조사를 하면서도 우리한테는 차표를 요구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버렸다. 장울화의 배경 때문이었을 것이다.

내 품에는 그때 문건도 있었고 비밀자료들도 있었다. 경찰이 몸을 수색하게 되면 나도 무사할 수 없었다.

해룡역에서 도착하니 홈과 개찰구옆에서 일본영사관 경찰들이 어마어마하게 진을 치고 있는 광경이 보였다. 나는 육감으로 나에게 어떤 위험이 닥쳐왔다는 것을 느꼈다.

해룡역에 있는 적이 일본경찰들이라고 하니 신경이 몹시 날카로와졌다. 중국의 순사나 일본순사나 다같은 순사이지만 일본순사들에게 걸려들면 더 용수가 없었다. 만주에서 조선혁명가들을 붙잡기만 하면 사정없이 국내로 압송하거나 관동도독부법원들에서 재판을 하여 려순, 대련, 길림 등지에 있는 감옥들에 마구 잡아넣을 때였다.

내가 어떻게 할 지 결심을 못하고 물끄러미 창밖을 바라보고 내다보고 있을 때 장울화가 특별히 바쁜 일이 없으면 자기와 같이 가자고 하였다. 같이 가서 아버지도 만나보고 자기의 장래문제도 의논해보자는 것이였다.

나는 원래 초시역에서 차를 내려 목적지까지 가려고 계획하였다. 초시역으로 가자면 다섯정거장이나 여섯정거장 더 가야 하였다. 장울화가 해룡역에서 내리게되면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으지므로 뜻밖의 위험이 조성될 수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거의 요청에 응하기로 하였다.

역에는 마침 장울화의 아버지가 나와 있었다. 영구라는 곳에 가서 인삼을 팔고 돌아가는 길에 아들이 해룡역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을 나왔다는 것이였다. 허리에 모갑싸창을 찬 수십명의 가병들이 우리 앞에 고급마차를 들이대였는데 행색이 여간 으리으리하지 않았다. 그통에 영사관들은 어안이 벙벙해서 감히 우리에게 접어들지 못하였다.

우리는 고급마차를 타고 가병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보란듯이 이 역전거리를 달리었다. 그날 나는 고급여관에

김철주동지(우)와 장울화동지(좌)

들어 장울화네와 함께 지내면서 휴식을 잘하였다.

장울화네는 보초도 자기네 가병들로 세웠다. 여관둘레에 가병들이 두겹세겹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어서 있었다.

장울화의 아버지는 오래간만에 만나니 반갑다고 하면서 나를 특별방에 안내해주고 좋은 음식을 연방 청하였다. 원래 그는 무송시절부터 나를 보면 여간 살틀하게 대해주지 않았다. 손님들이 누구인가고 물으면 롱삼아 양아들이라고 소개하였다. 처음에는 롱으로 그렇게 불렀는데 나중에는 진심을 가지고 양아들, 양아들 하였다.

나는 장울화가 큰 부자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무송에 있을 때부터 그와 가깝게 지냈다. 어려서부터 지주가 착취자라는 일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장울화와의 관계에서는 그것때문에 구속을 받지 않았다. 사람이 어질고 양심적인데다가 반일감정이 강해서 거리를 두지 않고 가깝게 지냈는데 위급한 대목에서 도움을 받고보니 감개무량한 생각이 들었다. 내가 평소에 지주의 아들이라고 장울화를 따돌리었다면 그들이 결정적인 대목에서 나를 그처럼 성실하게 보호해주지 않았을 것이다.

혁명에 참여하거나 그것을 지지하지 않아도 일평생 호강하며 살 수 있는 장울화와 같은 부자의 자식이 위급한 순간에 아버지와 힘을 합쳐 나를 도와준 것은 그가 나와의 의리를 귀중하게 여겼기 때문이었다.

내가 무송에서 소학교를 다닐 때부터 장울화는 자기와 나 사이에 부자와 가난한 자, 중국사람과 조선사람이라는 간격을 두지 않고 친근하게 지냈다. 그는 나라를 강탈당한 우리의 설움을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고 동정해주었으며 조국을 광복하려는 우리의 결의와 이상을 충심으로 지지해주었다. 장울화가 그렇게 한 것은 그 자신이 자기 조국과 중화민족을 열렬히 사랑하는 애국자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조선민족의 비운에서 중화민족의 불행을 보았다.

장울화의 아버지도 부자이지만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주장하는 지조가 강한 애국자였다. 그의 애국충정은 그가 지은 자식들의 이름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그는 맏아들이 태어나자 울중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울중의 두 번째글자 ≪중≫은 ≪중화민국≫이라는 중국의 국호에서 첫 글자를 따온 것이었다. 둘째한테는 울화, 셋째한테는 울민이라고 이름을 연이어 지어주었으며 넷째가 태어나면 울국이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그런데 넷째는 출생하지 않았다. 네 이름의 두 번째 글자를 합치면 ≪중화민국≫이라는 국호가 된다.

장울화는 그때 나에게 명년 봄이나 가을쯤에는 일제놈들이 쳐들어올 것 같은데 일제놈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작정인가고 물었다.

나는 그에게 ≪일제놈들이 들어오면 맞받아나가 싸우려고 한다. 무장투쟁을 하자는 것이다≫라고 말해주었다.

장울화는 자기도 투쟁을 하기는 하여야겠는데 집에서 허락하겠는지 모르겠다고 걱정하였다.

그래서 나는 말해주었다.

≪나라가 없어지는데 집이 다 무엇이냐. 너도 낡은 사회를 반대하여 싸우기로 마음먹었으면 혁명을 해야 한다. 인제 다른 출로라는 것은 없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우국지사로 공산주의에 대한 말이나 하고 집에 앉아서 책이나 보는 것밖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 이 두 길밖에는 없다. 그러니 부모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혁명을 해야 한다. 그것이 중국을 위한 길이고 중화민족을 구원하는 길이다. 너야 다른 것이 있다. 중국사람들과도 같이 혁명을 해야지. 일제놈들이 쳐들어오면 그때에는 조선사람들 뿐만 아니라 중국사람들도 같이 들고일어날 것이다.≫

어렇게 그 여관에 2-3일동안 묵으면서 장울화에게 반일사상을 불어넣었다. 장울화는 나의 권고를 듣고 나서 학교를 마치면 자기도 혁명을 하겠노라고 하였다.

나는 그에게 ≪내가 정 바쁘면 너의 신세를 또 질 수 있으니까 심양 어디에 가 있겠는지 주소나 하나 적어달라≫고 하여 그의 심양주소를 받았다. 그런 다음 목적지까지 무사히 빠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줄 수 없겠는가고 하였다.

장울화는 너를 돕고 보호해주는 일이라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는가고 하면서 나를 자기네 마차에 태워 해룡현과 청원현의 경계에 있는 중국동무의 집까지 데려다주었다.

내가 찾아간 그 동무의 집도 역시 장울화네와 같이 잘사는 집이었다. 중국혁명의 선각자들 중에는 그런 사람도 적지 않았다. 나는 그래서 중국혁명이라는 것이 특이한 혁명이었다고 늘 생각하게 된다. 로동계급이나 농민과 함께 인테리들, 돈냥이나 있는 사람들도 혁명운동, 공산주의운동에 많이 참가하였다.

부유한 가정출신의 사람들도 인간의 자주성과 사회발전을 억제하는 모순들을 발견하게 되면 그 모순을 제거하기 위한 혁명운동에 참가할 각오를 가질 수 있다. 자산가출신들 가운데서 근로대중의 이익을 옹호하여 싸우는 투사나 선각자들이 배출되는 것은 그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출신이 아니라 세계관에 있다.

인생을 하나의 도락이라고 보게 되면 혁명을 못하고 부를 누리는 것으로 그치고 말며 도락을 못누려도 사람답게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게 되면 부자도 혁명에 참가하게 되는 것이다.

계급혁명이라고 하여 이런 선각자들을 다 따돌리게 되면 혁명 그 자체가 큰 손실을 보게 된다.

나는 중국동무의 집에서 며칠간 묵었는데 그 동무도 장울화처럼 나를 잘 대해주었다. 그 동무의 성이 왕가였던지 위가였던지 지금은 기억이 삭막하다. 그 사람을 내세워 며칠동안 최창걸을 찾아보았으나 허사였다. 최창걸은 8.1폭동이 일어난 다음 지하로 깊숙이 들어갔다고 하였다.

나는 초시부근의 공청원을 한명 만나 해룡과 청원일대에서 파괴된 조직들을 속히 복구하고 무장투쟁준비를 적극 다그치라는 부탁이 담긴 편지를 주어 최창걸에게 전하도록 하였다.

중국동무의 집에서 며칠동안 손님대접을 받으면서 지내보니 그것도 갑갑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신변에 위험이 조성되더라도 대지를 마음껏 밟으며 자유분방한 활동에 몸을 잠그고 싶어 견딜 수 없었다. 길림에 다시 돌아가기도 어렵고 또 남만철도는 일제놈들이 주관하고 있어 기차를 타는 것도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간도에 가고 싶었으나 공산당검거선풍이 불어치는 그런 고장에 가서 견딜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그래도 가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어떻게 하든지 동만에 나가서 무장투쟁준비를 해야겠다고 결심하였다.

나는 중국동무와 함께 해룡에서 기차를 타고 길림까지 갔다가 거기서 다시 기차를 타고 교하라는 곳으로 떠났다. 교하에는 우리의 영향하에 있는 조직들이 많았다. 길림시절부터 나와 친교를 맺어온 한영애와 그의 삼촌 한광도 거기에 있었다.

나는 그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당분간 군벌의 추격을 모면할 수 있는 은신처도 꾸리고 조직을 복구정비하는 사업도 벌일 작정이었다. 한영애를 만나면 할빈에 있는 국제공산당산하 상급조직과의 연계도 지으려고 생각하였다.

한영애는 1929년 초에 가정사정으로 길림에서 학교를 중퇴한 후에도 교하에 들어와서 계속 우리와의 연계를 끊지 않고 있었다.

나는 누구부터 찾아가야 할지 결심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독립군시절에 중대장을 하던 장철호한테 먼저 들리었다.

국민부가 나온후 독립군의 상층과 결별하고 군복을 벗어던진 그는 교하에 내려와서 정미소를 차려놓고 영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내가 그를 찾아간 것은 그가 우리 아버지의 친구로서 나를 무척 사랑해주던 사람이고 믿음이 가는 애국지사였기 때문이었다. 나에게는 조직성원을 만날 때까지 임시로 몸을 붙이고 지낼 수 있는 생활거처가 필요하였다.

그 사람은 내가 왔다고 몹시 반가와하면서도 집에 숨어있으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가 좀 겁을 먹고 있는 것 같은 눈치이기에 나도 찾아온 사유를 털어놓지 않았다. 나는 리재순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발길을 돌리었다.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까지만 하여도 여관업을 하면서 독립운동가들을 잘 후원해주던 사람이었다. 그도 역시 나를 반갑게 맞아주기는 하였지만 중국음식점에 데리고 가서 교즈 한 그릇을 사먹이고 나서는 갈라지자고 하였다.

그 당시 나에게는 한두끼의 식사보다도 숨어있을만한 거처가 더 필요하였다. 그 사람도 내가 찾아왔으면 그런 눈치를 모를리 없건만 하루밤 집에서 자고 가라는 말도 없이 그저 잘 가라고만 하였다. 그 사람은 벌써 자기에게 화가 미칠 것부터 먼저 생각하고 지난날의 의리나 친분관계는 다 져버리었던 것이다.

여기서 나는 하나의 심각한 교훈을 얻게 되었다. 사상적 결합이 아니고서는 아버지의 친구도 다 소용없다, 지난날의 친분관계나 인정만 가지고서는 혁명투쟁을 함께 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이 그때에 얻은 뼈저린 교훈이었다.

사상이 변하고 신념만 변하면 의리나 인정도 동시에 변하는 법이다. 지난날 죽자살자하면서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 사이에 틈이 생기고 인간적 결렬이 생기게 되는 것도 다 어느 한쪽의 사상이 변하는데서 오는 것이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장담하던 우정이나 동지적 유대도 어느 일방이 사상적으로 변질되면 금이 가기 마련이다. 사상을 고수하지 않고서는 의리나 친분관계도 지켜낼 수가 없다는 것이 그후 장구한 혁명투쟁과정을 통하여 내가 얻은 하나의 교훈이다.

(내일 계속)

일화

무한한 헌신성

장군님께서는 나라와 민중, 혁명과 사회주의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선군혁명령도의 시찰길을 끊임없이 이어 가고 계신다.

장군님께서 오늘은 어느 부대를 현지시찰하고 계실가, 어느 령길, 어느 바다길, 어느 밤길을 걷고 계실가… 문득 이런 생각에 잠기는것이 이북민중들과 인민군군인들의 상정이다.

장군님의 선군정치의 나날은 그야말로 군시찰에 바치시는 헌신의 나날이며 말그대로 주야장천, 불면불휴의 령군실록이고 영웅서사시이라고 감복하게 된다.

김정일장군께서는 일신의 위험도 돌보지 않으시고 인민군부대들을 현지시찰하고 계신다.

장군님께서는 바람 세차고 파도 사나운 바다길도, 적의 총구가 코앞에 도사리고 있는 최전연도, 언제 락반사고가 일어 날지 모르는 백리 물길굴도 가리지 않으시고 인민군군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에나 찾아 가신다.

1996년 11월에 있은 장군님의 초도방어대시찰도 그러한 사례의 하나이다.

그날 마가을의 맵짠 바다바람은 초당 20m로 휘몰아 치고 광란하는 바다의 파도는 2m 높이를 넘었다. 거기에다 구름 덮인 하늘에서는 비방울까지 짓뿌렸다.

집채 같은 파도가 모든것을 덮쳐 버릴듯 요동하는 그 바다를 자그마한 쾌속정으로 장군님을 모시고 항행한다는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였다.

군지휘일군들은 최고사령관동지, 바다모양새가 몹시 나쁩니다, 가시더라도 좋은 날씨를 택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형편에서는 쾌속정으로는 항행할수 없습니다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장군님께서는 우리가 언제 순풍에 돛을 달고 다닌적이 있는가고 하시면서 전사들을 찾아 가는 나의 길은 그 어떤 풍랑도 막지 못할것이요라고 결연히 말씀하시였다.

이윽하여 쾌속정은 떠났지만 그것은 격랑하는 망망대해의 일엽편주와 같은것이였다.

수행원들은 장군님께서 타신 배가 천길 물속에 휘말려 들어가듯 사라질 때에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듯 하였다. 그러다가 배가 나타나는것을 보면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이렇게 가슴을 옥죄기를 그 몇번, 그야말로 1분 1초가 10년 맞잡이로 느껴 지는 아짜아짜한 순간의 련속이였다.

드디여 사나운 풍랑을 헤치며 장군님께서 타신 배가 섬에 이르렀을 때 그곳 군인들은 그분의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렸다.

인적이 그리운 외진 섬에서 생활하다보니 손님이 오는 날이 명절이나 같다고 하는 그들이였다.

그러한 초병들이 오매에도 뵙고 싶던 장군님을 맞이하였으니 그 기쁨, 그 감격, 그 영광은 오죽하였으랴.

군인들이 있는 곳은 그 어디에도 가야 하며 그들의 군무생활을 료해하고 보살펴 주어야 한다는것이 최고사령관으로서의 그분의 현지시찰의 본지인것이며 따라서 군인들을 찾아 가는데서 그 어떤 위험도 일신의 안녕도 안중에 두지 않는것이 그분의 류다른 령도풍모인것이다.

김정일장군께서는 폭양도 혹한도 무릅쓰시고 찬바람, 눈비를 다 맞으시며 사시장철 군현지시찰을 이어 가신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수수천날로 이어 지는 장군님의 군시찰길에는 눈비도 때없이 내렸고 찬바람도 모질게 불었으며 어둠이 내리 덮여 승용차행렬의 전진속도를 저애하는 때도 있었다. 하지만 장군님께서는 단 한번도 시찰계획을 변경시키거나 미루신적이 없었다.

송가

햇살들의 노래

이준식

온 누리에
생의 빛을 안겨주며
삶의 질서를 주관하는
푸른 하늘 저 태양은
온 백성의 어버이
하나로 이어터지는 새하얀 불꽃이 되어
산과 들을 뒤덮고 나무와 풀을 일으켜
넓은 뜰에 내려꽂히는 햇살들
바글바글 와글와글
햇살들에 쏘인 구중궁궐 쥐새끼들
비상등 밝히고 비상종 울리라
동풍 남풍 북풍 서풍 불러와
내려꽂히는 뜨거운 햇살들 잡으려고
온 세상을 돌아쳤어도
높이 솟은 태양에겐 한 점의 티끌
굵은 땀 방울방울 맺힌 얼굴마다
소리없이 다가와 껴안는 태양
불끈 쥔 주먹이 가슴을 뛰게 하고
불덩어리 신념으로 솟아오른 햇살들
온 누리를 뒤흔들며 울려가는 노래
햇살들의 노래 들려온다
이 세상 그 어디에 뿌리내려도
이 세상 어느 땅에 싹이 텄어도
한결같이 지켜주고 보호하는 태양 있어
아무런 걱정 없이 새 세상 꽃피워요
비바람 폭풍위에 날려왔어도
눈보라 설한풍에 쓸려왔어도
우리 하늘 우러르면 두팔 벌린 태양 있어
희망을 노래하고 사랑을 노래해요
혼자서 먹기보다 다 함께 먹자
혼자서 살기보다 다 함께 살자
참사랑을 실천하는 영원하신 태양 있어
햇살들 영원세세 그이 품에 살자 해요

흠모

민중이 우러르는 영도자

작금연간 위대한 **김정일**영수님을 경모하고 따르는 이남민중의 흠모심이 전례없이 고양되고 있다.

특히 주체88(1999)년은 영수님에 대한 흠모의 정과 영수님을 민족의 구세주로 믿고 따르려는 기운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다.

그것은 지난해 언론매체들이 경애하는 **김정일**영수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전례없이 많이 .모신 데서 볼 수 있다.

오래전부터 언론출판계에서는 민족의 어버이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영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뵈옵고 싶어 하는 민심을 반영하여 출판물에 두분의 존귀하신 영상들을 모셔 오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거의 모든 출판물들이 주요 계기가 있거나 이북을 소개할 때마다 주석님과 영수님의 영상을 앞을 다투어 모셨으며 특히 인민군부대들과 경제부문에 대한 **김정일**영수님의 현지지도에 관해 대서특필했다.

심지어 ≪조선일보≫, ≪월간조선≫, ≪이북≫과 같은 반북성향이 강한 보수언론지들까지도 **김정일**영수님의 영상사진을 특집으로 모셔 내외의 주목을 끌었다. ≪월간조선≫이 지난해 8월호에 **김정일**영수님의 30대시기의 영상사진을 비롯하여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영수님의 영상사진을 한번에 12상이나 특집으로 모신 것은 그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이례적인 현상이다.

지난해 주요 출판물들에 모셔진 주석님과 영수님의 영상사진은 무려 1백여상에 달한다. 이것은 그 이전의 5년동안에 3백여상을 모셨던 것과 대비하면 훨씬 많이 모신 것으로 된다.

실로 이것은 **김정일**영수님을 경모하는 민심의 반영이라 해야 할 것이다.

위대한 **김정일**영수님에 대한 추앙심은 영수님의 위인적 자질과 풍모를 격찬하는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온 데서도 볼 수 있다.

지난해에 **김정일**영수님을 격찬하는 자료들이 나온 총건수는 언론, 인터넷을 통해 보도된 것만도 2백 50여건에 달한다. 이것 역시 전례없는 일인 것이다.

지난해 잡지≪말≫4월호에 게재된 바와 같이 3월 4일자 대전우체국 도장이 찍혀있고 발신자의 이름이 ≪진달래≫로 되어 있는 편지가 법무부장관에게 배달되었는데 내용인즉 전민이 일심단결되어 **김정일**영수님을 하늘처럼 믿고 따르는 이북의 실상에 찬탄을 표시한 다음 **김정일**영수님의 민중중심정치를 촉구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1일 위대한 **김정일**영수님께서 현대그룹 정주영명예회장을 접견해 주신 소식과 그에 관한 영상사진이 출판물에 실린 것을 보고 각계민중은 영수님에 대한 끓어오르는 경모의 정을 금치 못했었다.

≪민족의 유일한 영도자는 **김정일**총비서≫,≪**김정일**장군은 절세의 위인≫, ≪**김정일**총비서는 백전노장≫ 등 국군장병들과 학계, 언론계, 종교계, 재계 등 각계각층에서 울려나오는 흠모의 목소리는 날을 따라 그 폭과 심도가 더욱 강렬해지고 있다.

지난해 3월 대전교도소 앞에서 환영나온 3백여명의 군중과 감옥에서 나온 비전향장기수들이 한데 어울려 부른 만세3창은 깊은 의미를 띠고 있었다.

당시 비전향장기수들과 군중이 함께 외치는 만세3창 광경을 잡지≪이북≫은 옥중투쟁혁명가승리만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세, 사회주의 공산주의 종국적 승리만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와 친애하는 **김정일**장군만세를 함축한 의미였다. …

교도소정문 앞은 마치 북의 지배지역을 방불케 했다고 썼다.

위대한 **김정일**영수님을 우러러 따르는 민심은 재작년(1998)에도 뜨겁게 분출되었다.

특히 영수님께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신 소식과 첫 인공위성≪광명성1호≫의 성공적 발사소식 그리고 현대그룹 정주영명예회장을 접견해 주신 소식 등은 이남전역을 **김정일**영수님에 대한 찬탄의 목소리로 뒤덮게 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남한의 목소리≫라는 소제목을 달고 ≪**김정일**총비서이시여 내 아버지가 되어 주소서, 아니 4천만 이남민중의 친아버지가 되어 주소서≫라는 글을 새겨 만사람의 감탄을 자아낸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위대한 **김정일**영수님에 대한 경모심은 2천년 새해에 들어와 더욱 뜨겁고 강렬해지고 있다.

민족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영수님께로 쏠리는 민심은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 수 없으며 그 흐름은 대하마냥 날을 따라 더욱 커질 것이다.

미국, 미사일요격시험 실시

미국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16일 태평양 상공 우주에서 모의탄을 요격하는 미사일요격시험을 실시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구축을 위한 요격시험은 지금까지 네차례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계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고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장본인이 다름아닌 미국호전계층이라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시는 지난해 미 국방대학 학생들 앞에서 연설하면서 공격과 방어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운운하며 불량배국가들로부터 미국 자체와 동맹국들을 보호할 수 있는 미사일방어체제를 수립한다는 것을 공식선포했다고 했습니다.

부시는 미사일방어체제구축결정으로 핵광신자, 평화파괴자로써의 자기의 정체를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내놓았습니다. 세계의 평화보장관계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핵군축에 있는 것입니다.

현시기 평화의 가장 큰 위협으로 되는 것은 핵군비경쟁입니다. 그 장본인은 다름아닌 미국입니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수립책동은 본질에 있어서 자주적인 나라들, 특히 대국들을 군사적으로 제압하고 세계패권을 쥐자는 것입니다. 미국은 강력한 우주미사일공격망을 구축해 군사전략적 우위로 새로운 초대국과 지역강국들의 출현을 막고 저들의 지시에 복종하지 않는 나라들을 공격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세계에서 미국을 위협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호전계층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떠드는 불량배국가들에 대해 말한다면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미국의 간섭과 전횡을 반대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은 자기의 신념과 결심에 따라 독자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나라들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며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나라들에 위험국가, 불량배국가라는 딱지를 붙여놓고 이 나라들로부터 위협을 막기 위해 미사일방어체제를 세워야한다며 미사일요격시험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미사일방어체제수립을 세계를 거머쥐기 위한 명함으로 내세우고 본격적으로 추진시키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것은 심각한 역사적 오류로 됩니다.

첨단 군사과학과 우주기술, 핵무기는 결코 미국만이 가지고 있는 독점물이 아닙니다. 미국이 우주를 군사화하고 군사적 패권을 행사하려는 여건에서 여러 나라들이 그에 대응하는 길로 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사회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구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고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자들의 운명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미국이 미사일방어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올가미를 거는 것으로 됩니다.

미국 호전계층은 사태발전의 엄중성을 똑바로 파악하고 미사일광증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화제의 초점 - 구국의 소리
주체91, 3월 19일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 91, 3월 19일

김일성주석님을 열렬히 경모
경기도 화성군의 농민

3월 15일 경기도 화성군에 사는 김갑술 농민이 **김일성**주석님을 열렬히 경모하였습니다.

김씨는 가정대사로 한데 모인 가족친척들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50년 여름 고향에서 옥토를 내땅으로 분여받던 때를 잊을 수 없다. 그때 이 남땅을 해방시켜주신 **김일성**주석님께서 토지개혁법령을 공포하시어 제 땅을 가지고 싶어하던 가난한 농민들의 숙원을 풀어주셨다. 그 하늘같은 은덕이 하도 고마워 동네사람들은 공덕비 대신 백양나무들을 심어 그 은공 기리자고 했었다. 이번 따라 그때 일이 새삼 더 그리워진다. **김일성**주석님의 은공은 죽어도 잊지 못할 것이다.≫

그는 그때의 사실을 후세에 기리 전하고자 창작된 노래라고 하면서 ≪장군님의 은덕을 기리 전하네≫를 불러 좌중을 더욱 숭엄하게 하였습니다.

대규모적인 합동군사훈련 규탄
이북 외무성대변인

평양방송에 따르면 이북 외무성대변인은 미제침략군의 주도하에 이남에서 대규모적인 합동군사훈련이 진행되게 되는 것과 관련해 18일 이를 규탄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담화는 부시집단이 이번에 이남 전역을 작전무대로 해 강행하려는 합동군사훈련은 이북에 대한 선제타격계획을 실전에 옮기기 위한 종합적인 전쟁연습이며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 기회를 만들려는 매우 위험천만한 전쟁도발책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현 미행정부의 반북강경적대시정책이 이처럼 실천적인 북침전쟁정책에로 넘어감에 따라 지금 한반도정세는 위험계선을 넘어 일촉즉발의 엄중한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면서 담화는 현실은 부시집단이 지금까지 표방해온 대화재개설이 저들의 전쟁흉계를 가리워보려는 한갖 기만술책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담화는 이남 호전세력이 미국과 함께 동족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에 참가하는 것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공약한 6.15공동선언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적대행위라고 지적하고 그것이 남북관계에 초래하게 될 악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담화는 미국이 상대가 누구인가를 똑똑히 가려보고 분별있게 처신해야한다면서 이북은 결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피하지도 않으며 지구상 그 어디에 있는 침략자도 무자비하게 탄핵하고 소멸할 수 있는 멸적의 의지와 힘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출범 공식선언
공무원노조준비위원회

공무원노조준비위원회는 16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무원노동조합출범을 공식선언했습니다.

노조준비위원회는 이정천 전북도직장협의회회장을 초대 공무원노조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정치, 사회전반의 개혁과 새로운 노조문화창설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출범식은 경찰의 원천봉쇄로 회원 등 50여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옥외에서 진행됐습니다.

경찰이 출범식장이였던 교육문화회관을 봉쇄하고 회원들의 입장을 저지시키는 바람에 경찰과 회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회창의 사과 촉구 시위
자민련

자민련은 한나라당 부총재단이 이원종 충북지사를 방문해 공개적으로 탈당을 권유한 것은 정당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반민주적 폭거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이에 사과하지 않을 경우 이회창의 정치권퇴진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민련은 18일 지구당위원장과 중앙위원 등 6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나라당규탄대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습니다.

집회가 끝난뒤 자민련 지구당위원장과 당원 등 150여명이 한나라당사앞에서 이회창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자민련 여성위원회 소속 당원 100여명도 이회창의 자택이 있는 가회동 주변에서 이총재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자민련당원들이 한나라당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부산미문화원방화투쟁의 운동사적 의미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부산미문화원방화투쟁이 있은 때로부터 어언 20년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부산의 하늘가에 타올랐던 그 불길이 그대로 들불이 돼서 오늘로 성장발전하며 멀리 전진해온 반미투쟁을 생각할 때 우리는 20년전 그날의 투쟁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엔 부산미문화원방화투쟁의 운동사적 의미,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오 일 : 아시는 것처럼 5.18 광주민중항쟁이후 문부식씨를 위시한 고신대, 부산대, 부산여대 애국학생들은 미국의 침략적 죄행과 광주살인만행을 내외에 고발하고 응징하기 위해서, 최 고양된 우리 민중의 반미의지를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부산미문화원방화라는 그런 ****을 단행케 했던 겁니다. 그들은 이미 전에 이념써클인 **회를 조직운영하면서 의식화작업을 했을뿐 아니라 삐라살포조, **조, 방화조 등 면밀한 준비와 함께 ****했죠. 이에 기초해서 그들은 지금으로부터 20년전인 1982년 3월 18일 낮 2시경에 부산미문화원에 불을 질렀고 그 주변에 있는 국도극장과 유나백화점 등 시내도처에 삐라를 살포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미국은 더이상 한국을 속국으로 만들지 말고 이 땅에서 물러가라!≫, ≪부산미문화원에 대한 공격은 반미캠페인의 시작에 불과하다!≫ 등 반미로 일색됐고 또 그날의 함성 역시 ****로 부산의 하늘가에 메아리쳤습니다.

사회자 : 부산의 하늘가에 세차게 타올랐던 그날의 반미불길은 청년학생들의 일시적인 충동이나 그 누구의 사주에 의해서 저질러진 단순한 방화가 아니였습니다. 부산의 애국학생들이 반미구호를 전면에 제기하고 미문화원을 공격해나선 건 한국대중운동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를 반영한 거였잖아요.

오 일 : 그렇죠. 어떤 운동에서든지 투쟁구호를 아무때나 들고 나오는게 아닙니다. 또 저절로 나오는 것도 아니구요. 이런 맥락에서 볼때 반미구호를 전면에 제기한 부산미문화원방화투쟁은 광주민중항쟁이후 고양된 우리 민중의 반미의식의 반영이였고 그 분출이였다고 봅니다. 사실상 미국을 해방자, 우방으로 알고 보호자로 믿어왔던 우리 민중의 대미의식이 광주대학살사건을 통해 숭미로부터 반미로 확고히 전환됐어요. 반미를 하는 길에 민족의 자주권을 찾고 민주와 통일을 이룩하는 길이 있다는 걸 폐부로 절감했던 겁니다. 다시말해서 우리 민중은 5.18 피의 광주를 통해서 미국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 민족적으로 각성하게 됐고 투쟁의 예봉을 점차 미국에 돌리게 되었어요. 한국사회의 식민지적 성격으로부터 우리 민중의 반파쇼민주화투쟁이 식민지파쇼통치의 원흉인 미국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으로 심화발전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부산미문화원방화투쟁은 이같은 주객관적 요구를 반영한 의로운 반미자주화투쟁의 봉화였다고 봅니다.

사회자 : 그렇습니다. 부산미문화원방화투쟁의 직접적 동기는 문부식씨가 말한 바와 같이 군부독재를 가능케한 12.12사태를 지원 묵인한 것, 광주시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묻는 것, 미국의 잉여농산물거래사건 그리고 미8군사령관 위컴과 주한미대사 워커의 한국민중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이였다고 하겠습니다만 보다 기본적인 동기는 미국의 식민지파쇼통치에 대한 우리 민중의 쌓이고 맺힌 원한과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부산미문화원방화투쟁은 한국대중운동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를 그대로 반영한 의로운 애국적 장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것으로해서 그 의미는 자못 크다고 하겠는데요.

오 일 : 정말 부산미문화원에 타오른 불길과 애국학생들의 의로운 외침은 우리 민중의 강렬한 반미자주화의지를 세상에 알리고 이 땅에서 전면적인 반미자주화투쟁을 개시하려는 횃불이고 포성이였다고 하겠습니다. 때문에 이 투쟁은 이 나라 민중항쟁사에 빛나는 장으로 수놓아져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투쟁은 우리 민중이 결코 죽지않고 살아있다는 것, 우리는 미국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이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그런 민중이 아니라는 것을 온 세상에 시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미문화원방화가 갖는 의미는 미국과 그 식민지파쇼독재에 커다란 타격을 안긴거라 하겠어요. 아시겠지만 당시 미국과 파쇼집단은 방화투쟁의 정치적 성격과 파급적 영향력으로 해서 얼마나 불안에 떨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서울에 수사지도부라는 걸 내오고 급기야는 수사본부를 설치했죠. 그리고 경찰, 검찰, 정보요원은 물론 군병력과 향토예비군, 미군까지 동원해서 전국적인 수사작전을 펴고 파쇼폭압에 광분했어요. 심지어 이른바 범인색출에 엄청난 현상금까지 걸고 말입니다. 미국침략자들은 또 그들대로 불안과 공포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그때로 말하면 한미수교100돌을 앞둔 그런 시기였지 않습니까. 1982년을 한미우호의 해로 정하고 우호행사를 굉장히 치루어오던 바로 그런 때에 미국에 전면도전해 나섰으니 미국과 파쇼집단은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었죠.

사회자 : 당시 미국무성 대변인은 미문화원이 공격을 당하자 이 사건은 정치적인 동기에서 출발된 방화사건이다라고 비명을 올렸는가 하면 전미국무성 한국과장 레이나르는 국교수립이래 볼 수 없었던 미증유의 반미주의에 직면하고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이것만봐도 미국과 군부독재정권이 받은 타격이 얼마나 컸던가 하는 걸 엿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산미문화원방화투쟁은 이같은 역사적 의미에 못지않게 운동사적 견지에서의 의미 또한 크다고 하겠는데요.

오 일 : 그렇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민중항전사에서 부산미문화원방화투쟁은 우리 민중의 반미자주화투쟁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은 역사적인 기폭제였다고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우선 부산미문화원방화투쟁은 대중의 반미자주의식화에 공헌했다고 봅니다.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층 민중은 방화투쟁을 통해 크게 각성됐습니다. 부산에 타오른 불길은 광주대학살사건이후 국민대중속에서 급격히 싹튼 반미자주의식을 더욱 고양시켰고 민족주체적 힘으로 미국과 직접 맞서 싸울 의지를 더욱 북돋아주었습니다.

부산미문화원방화투쟁은 이렇게 광범위한 대중을 민족자주의식으로 각성시켰을 뿐 아니라 실천적으로 반미자주화투쟁의 돌파구를 열어놓았다는데 또하나의 큰 의미가 있다 해야 할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부산미문화원방화투쟁을 대중운동을 보다 차원높은 반미자주화투쟁에로 승화발전시키는데서 기폭제적인 역할을 한 반미구국의 성화였다고 하는거죠. 여기에 바로 부산미문화원방화투쟁의 운동사적 의미가 있다고 하겠어요.

사회자 : 20년전 그날 부산미문화원에서 타오른 반미의 불길은 마침내 전국 각지, 각계층속에서 번져 지난날 반미의 무풍지대였던 한국이 반미열풍지대로 전변됐죠. 오늘 거족적으로 일어나는 반미항전을 대할때마다 우리 민중이 20년전 그날 부산의 열혈청년들의 애국적 장거에 대해 떠올려보곤 하는 건 그때문입니다. 각계 민중은 반미무풍지대로부터 반미열풍지대로의 전환적 계기를 마련한 부산의 애국학생들의 그날의 반미의지를 가슴에 새기고 반미항전을 더욱 과감히 벌여나가야 할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대담 - 구국의 소리
주체91, 3월 17일~18일

진짜 악의 근원을 들어내자

반세기이상이나 지속되어온 미군의 한국강점은 우리 민중에게 참으로 많은 불행과 고통을 안겨주었는데요. 그건 이루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각도 우리 민중에 대한 주한미군의 만행은 그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럼 이번엔 경기도 파주시에서 살고 계시는 김철영씨가 보내온 글입니다. ≪진짜 악의 근원을 들어내자≫.

미군의 만행으로 우리 민중이 당하는 고통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커지고 있다.

지난달 12일 미2사단 **여단소속 미군이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마을에서 농민을 마구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미군은 마을길을 지나가면서 주민들의 통행을 가로막고도 이에 항의한다고 해서 우**농민을 총탁으로 어깨를 내리쳐 넘어뜨리고 총구로 얼굴을 찌르는 폭행을 가하였다. 이 만행으로 우씨는 뇌타박까지 받고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한다.

이러한 미군의 만행에 농민들을 비롯한 각계 애국민중은 치솟는 분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간과할 수 없는 건 미군의 이러한 만행이 처음이거나 또 한두번만 있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파평면 장파리 농민들은 그동안 이 지역에 있는 미군사격장과 탱크훈련장에 의한 피해로 계속 고통을 당해왔다. 원래 이 훈련장은 1971년 미군이 동두천으로 옮겨가면서 비어지게 됐다. 그러나 미군은 여기를 사격장과 탱크훈련장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리고는 여기 주민들이 빼앗긴 땅을 되찾기 위한 운동을 벌이자 1998년부터는 본격적인 기갑부대훈련을 진행했던 것이다. 결국 농민들의 맨몸과 탱크와의 전쟁이 시작됐던 것이다.

정완수농민의 큰아들이 미군탱크에 치어 희생된 것은 그 하나의 사례이다. 그동안에 농민들이 당한 피해와 그로인한 고통은 이루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였다. 또한 각종 소음공해와 환경오염을 비롯해서 훈련도중에 발사되는 포탄에 의해 항시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야 했다.

그칠새없는 미군의 만행에 분격한 농민들의 투쟁이 강화되자 미2사단은 지난해 8월 농민들에게 마을길 통행을 막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이를 무시했다. 그리고는 이를 항의하는 농민들에게 폭행까지 가하는 횡포를 자행했던 것이다.

이것이 어찌 파평면 장파리농민들만이 당하는 고통이겠는가. 이 땅 전체 농민들, 아니 우리 민중 전체가 당하는 불행과 고통인 것이다.

제반 사실은 주한미군이야말로 이 땅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 수 없는 재난을 가져다준 침략자이며 우리 민중이 겪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야말로 진짜 악의 근원이며 우리와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철천의 원수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현실은 주한미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한 투쟁에 농민들을 비롯한 이 땅의 각계 애국민중이 한사람같이 분기해나설 것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 농민대중은 미군을 몰아내기 전에는 자신들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이 가셔질 날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반미투쟁에 더욱 힘있게 나서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외세가 없는 통일된 민중의 참세상을 기어이 안아와야 할 것이다.

저주로운 주한미군에 대한 우리 민중의 원한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 원한을 힘과 용기로 바꿔 우리 1300만 노동대중은 미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한 반미항전에 한사람같이 분기해나서야 할겁니다.

노동자 농어민 시간
3월 18일~19일

조선중앙통신

주체 91(2002)년 3월 19일

부산≪미국문화원≫ 방화투쟁 20돐기념 평양시보고회

부산≪미국문화원≫방화투쟁 20돐기념 평양시보고회가 18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남조선의 애국적인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주체71(1982)년 3월 18일 가증스러운 부산≪미국문화원≫을 불살라 버리고 ≪미국 나가라≫, ≪미국의 신식민주의를 규탄한다≫라고 쓴 수많은 반미, 반파쑈 삐라를 살포하면서 반미투쟁의 불길을 지펴올렸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김경호1비서는 기념보고에서 부산≪미국문화원≫방화투쟁은 미제침략자들에 대한 쌓이고 맺힌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였으며 빼앗긴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고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려는 남조선인민들의 불굴의 의지를 과시한 정의의 애국투쟁이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부산≪미국문화원≫방화투쟁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통치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고 반미자주화투쟁의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열어 놓았으며 이 투쟁이 있은 이후 남조선에서는 투쟁의 예봉이 미제침략자들에게 돌려 지게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남조선인민들의 반미투쟁이 최근 미국대통령 부쉬의 ≪악의 축≫망발과 남조선행각을 계기로 더욱 고조되고 있는데 대해 언급하고 대중적인 반미항전을 힘차게 벌리고 있는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에게 뜨거운 동포애적지지와 성원을 보내였다.

그는 미제와 남조선 반통일호전세력의 분별 없는 책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조선반도에는 새 전쟁, 핵전쟁의 위험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이 계속 우리와 ≪힘≫으로 대결하는 길로 나간다면 그것은 자멸을 촉진하는 결과만을 가져 올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용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오익제부위원장, 사회단체 책임일군들, 대학총장, 학장들, 시내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콤퓨터총서 혁명의 성산 백두산

조선중앙과학기술통보사에서 콤퓨터총서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내놓았다.

혁명전통교양의 대백과사전인 이 총서는 모두 11개편으로 되여 있다. 백두산3대장군편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략력이 사진, 미술작품 및 동화상과 함께 들어 있다.

혁명전통올림말편에는 자모순, 분류검색형식으로 혁명전통용어 8,000여개가 전자사전형태로 들어 있다.

혁명전통원문자료와 백두산전설편에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비롯하여 20만페지에 달하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주요 혁명전통도서들이 수록되여 있다.

그리고 600여건의 혁명전설이 들어 있다.

구호문헌편에는 5,000여건의 구호문헌 원전문체와 사진, 해설, 발굴지점과 위치를 표시한 지도가 있다.

총서에는 혁명전통년표, 일지가 기록되여 있고 백두산지구 답사에 필요한 300장의 립체지도와 600장의 평면지도가 있다.

이밖에 동화상으로 된 100편의 예술영화, 기록영화의 주요장면과 3, 500장의 사진, 미술작품, 100곡의 혁명가요, 여러개의 다매체편집물이 들어 있다.

총서는 콤퓨터상에서 백두산3대장군의 혁명력사가 집대성되여 있는 백두산일대의 답사를 완전무결하게 실현할수 있게 한다.

총서는 선군혁명시대에 창조된 또 하나의 민족의 국보이다.

미싸일위협장본인을 미국으로 락인

9일부 평양의 신문들은 우리의 그 무슨 ≪위협≫설을 집요하게 들고 나오는 미국보수세력들의 망발을 규탄하면서 미싸일위협의 장본인은 미국이라는데 대해 까밝혔다.

≪로동신문≫ 론평의 필자는 오늘 세계의 전략적균형을 파괴하고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장본인은 다름 아닌 미국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미국은 극단적인 독선주의정책으로 제손으로 수표하였던 국제조약까지도 헌신짝처럼 차던지고 미싸일방위체계수립을 강행하고 있다.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수립책동은 오늘 국제무대에서 가장 큰 우환거리로 되고 있다. 그것은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수립놀음이 세계의 전략적안정을 파괴하고 새로운 군비경쟁의 도화선에 불을 다는 위험천만한 망동이기때문이다. 하기에 세계가 일치하게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수립놀음을 규탄배격하고 있는것이다.

미국으로서는 이러한 세계적항의와 규탄을 눅잦히기 위한 구실이 절실하게 필요한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미싸일위협≫설이라는 이미 꿰질대로 꿰진 북이라도 계속 두드리지 않으면 안되게 된것이다.

우리의 평화적인 미싸일계획은 우리를 적대시하지 않는 나라들에게는 절대로 위협으로 될수 없다.

≪민주조선≫ 론평의 필자는 미국은 우리에 대한 군사적압살정책이 몰아 올 엄중한 후과에 대하여 심각하게 검토하고 시대착오적인 행위를 당장 걷어 치워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반미반전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전개해 나갈것을 강조 ≪한민전≫대변인

서울에서의 ≪구국의 소리≫ 방송에 의하면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 대변인이 부산≪미국문화원≫방화투쟁 20돐에 즈음하여 18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대변인은 1982년 3월 18일 부산의 청년학생들이 이남땅을 강점하고 가장 야만적인 식민지군사파쑈통치를 실시하면서 광주시를 피바다속에 잠근 미제침략군에 대한 쌓이고 쌓인 원한과 분노를 터뜨리며 부산≪미국문화원≫에 불을 지르고 ≪미국 나가라≫, ≪미국의 신식민주의를 규탄한다≫ 등의 반미삐라들을 뿌렸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부산≪미국문화원≫방화투쟁이 있은후 도처에서 ≪미국문화원≫과 미국대사관을 비롯한 식민지통치기관들에 대한 점거롱성이 벌어졌으며 미국 기발을 불 태우고 미제의 전쟁연습과 내정간섭책동을 반대배격하는 투쟁이 적극 전개되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미국의 무분별한 책동으로 말미암아 ≪한≫반도에는 일촉즉발의 핵전쟁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북에 대한 미국의 공격은 곧 이남민중에 대한 선전포고로서 현대전에는 전후방이 따로 없고 핵참화에는 남과 북의 경계선이 있을수 없듯이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민족이 공멸하고 만다고 까밝혔다.

우리 ≪한민전≫은 전 국민과 함께 6.15공동선언의 기치높이 반미반전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전개해 나갈것이며 부쉬행정부가 끝끝내 전쟁도발의 길로 나간다면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량민학살의 피로 물든 이 땅을 미제침략군의 시체와 죽음의 매장터로 만들어 버릴것이라고 대변인은 강조하였다.

선군정치강조 우간다 벌가리아

태양절과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신 9돐에 즈음하여 11일 우간다 참보고종합대학에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에 관한 우간다주체사상연구소조들의 련합토론회≫가 진행되였다.

주체사상연구 우간다전국위원회 위원장인 물, 토지 및 환경성 국무상 바구마 이쏘케는 보고에서 **김정일**각하께서는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그를 핵심으로, 나라의 기둥으로 하여 전반적인 사회주의건설을 이끌어 나가시며 세계자주화위업을 승리에로 령도하고 계신다고 말하였다.

그이의 선군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고립압살책동과 계속되는 자연재해로 하여 모든것이 어려운 속에서도 한치의 드팀도 없이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힘차게 다그치고 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우간다 참보고사범대학 교원들의 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께서는 군대이자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 독특한 정치철학을 내놓으시고 선군혁명령도로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 나가고 계신다고 하면서 그이께서 내놓으신 선군혁명로선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 조선에서의 강성대국건설을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으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12일 벌가리아 주체사상연구소조에서 있은 토론회에서 는 최근 국제정세는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가 얼마나 정당한가 하는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조선은 세계사회주의, 공산주의운동의 전위대로서 1950년대에 미제의 세계제패야망을 파탄시킨것처럼 21세기에도 미국의 세계제패야망을 짓부셔 버릴것이라고 말하였다.

레바논공산당, 국제적서명운동에 참가

레바논공산당 대표 죠르즈 마가미쓰가 당총비서의 위임에 따라 1만 3, 000명의 당원들을 대표하여 13일 6.15북남공동선언을 지지하며 남조선에서 미군을 당장 철수시킬것을 요구하는 국제적서명문에 수표하였다.

서명문은 세계는 6.15북남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반세기이상에 걸친 조선반도의 분렬이 끝장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앙양된 통일열기에 맞게 미군을 남조선에서 철거할 대신 오히려 북조선을 ≪제1주적≫으로 규정하고 일방적인 대북강경로선을 추구하고 있으며 ≪북조선위협설≫을 의도적으로 퍼뜨리면서 남조선호전세력들과 함께 북을 겨냥한 군사연습을 련이어 벌려 놓고 있다고 서명문은 지적하였다.

서명문은 조선의 통일은 6.15북남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통일문제 당사자들인 조선민족의 단합된 힘에 의해 자주적으로 이룩되여야 하며 미국은 무모한 대북강경정책과 전쟁위험조성으로 조선반도의 통일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책임을 인정하고 남조선에서 자기의 무력을 철수함으로써 조선통일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조선반도의 안보문제에 관심 있는 나라들은 조선통일3대헌장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의 통일을 지지하며 이 문제를 자기의 목적과 리해관계에 복종시키거나 방해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서명문은 지적하였다.

현 일본집권세력의 ≪혁신정치≫는 위험한 전쟁정치

≪로동신문≫ 2월 21일부 론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변하지 않았으며 결코 변하지 않을것입니다.≫

일본에서 새 정권이 출현하여 두번째 해에 들어 섰다. 현 집권세력은 ≪개혁≫을 제창하면서 ≪혁신정치≫를 표방해 나섰다. 과거 낡은 ≪정치방식≫에서 벗어 나 ≪혁신적인 정치≫로 일본의 모습을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일본의 정치무대에서는 새로운 혁신적인것이란 찾아 볼수 없었다. 더 극단적인 우경화의 길로 나간것뿐이다.

현 당국자가 집권하여 ≪혁신적인 정치≫를 표방해 나선것은 실지로 일본을 옳은 길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본정치무대에서 충격적인 파문을 일으켜 혼란된 정계를 수습하고 ≪군국주의 배≫를 더 힘 있게 몰아 가려는데 있었다. 현 일본정부가 실시한 정책들은 군국주의지반을더욱 튼튼히 다져 군국주의적야망을 실현하는데 총적목적과 방향을 둔것들이였다.

새 세기에 들어 서면서 일본에서는 군국주의가 무섭게 머리를 쳐들고 활개치고 그속에서 일본은 더욱 우경화에로 기울어 졌다.

일본당국자는 선행한 집권자들이 감히 선뜻 나서기 두려워 하였던 ≪야스구니진쟈≫를 공식참배하려는 립장을 거듭 밝히였으며 끝내 그것을 실현시켜 군국주의바람을 세차게 일으켰다. 그의 뒤를 따라 수 많은 집권계층들이 무리를 지어 ≪야스구니진쟈≫로 달려 가 전쟁결의를 다지고 패망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였던것이다.

일본반동지배층내부에서는 공개적으로 재침을 선동하며 그에 필요한 전쟁법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울려 나왔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평화헌법≫의 준수를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사고방식으로 평가하면서 지금까지 그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였던 ≪평화헌법≫에 칼질을 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안전≫을 지키며 국제적인 ≪평화유지≫에 더 많이 ≪공헌≫해야 한다는 침략적인 군국주의론리에 따라 일본에서는 전후 처음으로 ≪자위대≫의 전쟁참가의 허용과 국내의 전시체제수립과 관련한 법안들이 련이어 작성되여 국회에서 거침없이 통과되였다. 일본반동들이 지난해 ≪9.11사건≫이후 전격적으로 만들어 낸 ≪자위대≫의 해외파병법과 주일미군기지 등을 ≪자위대≫가 경비할수 있게 하는 개정된 ≪자위대법≫,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법≫, ≪정체불명의 배≫에 발포하는것을 허용한 법들은 전후 수십년동안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벼르고 별러 오던 해외침략의 문을 활짝 열어 놓은 범죄적인 전쟁법들이였다. 이 법들의 제정과 함께 패망후 처음으로 일본≪자위대≫가 일장기를 휘날리며 인디아양지역에 진출하여 군사작전을 벌리고 있다. 앞으로 일본은 더 많은 ≪자위대≫무력을 해외군사작전에 참가시키며 그것을 통해 일본의 군사적영향력을 시위하고 세력권을 세계 여러 지역에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일본의 이지스급 구축함

일본은 더는 ≪평화국가≫가 아니며 20세기처럼 또다시 가장 위험한 침략세력, 전쟁국가로 등장하고 있다.

일본이 지금까지 형식상으로나마 ≪평화국가≫로 표방해 나설수 있은것은 침략무력을 가지지 않으며 다른 나라들을 반대하는 군사행동을 벌리거나 그러한 군사행동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평화헌법≫조항을 유지해 왔기때문이다.

새로운 전쟁법들의 제정으로 일본의 현행헌법의 전쟁금지조항은 유명무실하게 되였다. 이제는 일본에서 거의 모든것이 새로운 전쟁법들에 의하여 움직여 지고 있으며 ≪평화헌법≫준수를 요구하는 사람은 정치에 무디고 시대에 민감하지 못하며 ≪지각이 없는≫사람으로 취급되고 있다.

일본의 대외정책과 모든 정치적 및 군사적움직임은 지난날 전쟁을 일 삼으며 아시아의 ≪맹주≫가 될것을 꿈 꾸던 때의 지위를 확보하는데로 지향되고 있다. 전쟁법들의 제정과 일본≪자위대≫의 해외군사작전참가는 바로 ≪대일본제국≫의 옛 지위회복을 노린것이다.

일본≪자위대≫의 해외군사작전참가를 단순한 ≪지원≫이나 ≪국제적공헌≫으로만 분석평가해서는 안되며 그들의 행동을 범상히 대하여서도 안된다.

옛 제국의 지위를 회복하는데서 일본의 첫단계 작전은 침략무력을 해외군사작전에 진출시키는것이다.

일본은 이미 첫단계 군사작전에 나섰으며 그것을 통하여 ≪자위대≫의 군사행동범위를 더욱더 넓히려 하고 있다.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법≫개정으로 ≪자위대≫가 ≪유엔평화유지군≫의 기본활동에 참가하는것이 합법화되였다. 아직 해외에 침략적군사기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일본은 ≪유엔평화유지군≫의 기본활동에 ≪자위대≫를 참가시키는 방법으로 적극적인 해외군사적진출과 작전의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평화유지≫, ≪분쟁억제≫의 외피를 쓰고 다국적무력의 작전활동에 적극 참가하는 방식으로 전쟁에 뛰여 들려 하고 있는것이다.

큰 나라를 등에 업고 침략과 전쟁의 길로 나가는것은 일본의 상투적인 교활한 수법이다. 특히 최근년간 제국주의자들이 감행하는 침략전쟁들은 ≪국제적련대≫로 감행되고 있다. 즉 주권국가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전쟁이 ≪테로방지≫, ≪인도주의≫, ≪민주주의질서수립≫ 등의 간판밑에 여러 나라들의 ≪지지≫와 ≪지원≫속에서 감행되고 있다. 그런것으로 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전쟁이 오히려 ≪정당≫하고 ≪평화≫적인것으로 위장되고있다. ≪평화유지≫를 위한 다국적무력에 참가하는 형식으로 해외침략의 길에 나서면 일본은 침략국가라는 말을 듣지 않을수 있으며 오히려 국제적인 ≪지원≫속에서 자기의 군사적목적을 이룰수 있다는것이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전쟁관점이며 타산이다.

일본의 현 집권세력들은 적극적인 군사해외팽창의 출로를 미국과의 군사적동맹관계를 강화하는데서 찾고 있다.

미국의 전쟁행동에서 일본의 해외군사작전의 명분이 생기고 그 폭이 넓어 지기때문이다.

이로부터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국과 손을 더욱 굳게 잡고 있으며 손우동맹자가 되여 세계 여러 지역에서 무력행사와 간섭전쟁을 더 자주, 더 많이 벌리며 그 범위를 확대하기를 몹시 바라고 있다.

오늘 일본반동들은 허울 벗은 독사마냥 독을 풍기며 해외침략의 길로 줄달음치고 있다.

이것이 현 일본집권자들이 제창하는 ≪혁신정치≫의 진상이다. 이른바 ≪혁신정치≫는 현실이 보여 주는바와 같이 군국주의정치, 전쟁정치이다. 현 일본집권세력의 ≪혁신정치≫로 지금까지 ≪평화국가≫로 묘사되여 온 일본은 전쟁국가의 모습을 드러 내놓고 해외침략의 발을 내디디게 되였다.

세계진보적인민들은 현 일본집권세력의 ≪혁신정치≫의 반동성과 침략성, 그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고 대일경계심을 더욱 높여야 할 것이다. 일본의 집권자들은 일본에 무섭게 쏠리고 있는 아시아인민들을 비롯한 세계인민들의 날카로운 눈초리를 똑바로 보고 군국주의적인 전쟁정치를 시정하여야 한다.

(끝)

자강도를 온 나라의 본보기로 내세우시고 조선의 시대정신인 강계정신을 창조

≪특강≫ 역사에 길이 빛날 선군 영장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영도 제25회
학사 리광선생 -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주체91, 3월 19일

안녕하십니까. 전번 시간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경제를 추켜세우기 위한 방도를 제시하신데 대해서 강의해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자강도를 온 나라의 본보기로 내세우시고 조선의 시대정신인 강계정신을 창조하신데 대해서 강의해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에로 조직영도하시는 나날에 자강도를 본보기로 내세우시고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셨습니다. 주체88(1999)년을 강성대국 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 있던 그해 9월 27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나온 나날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전에 고난의 행군을 어떻게 승리적으로 결속짓겠는가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다가 자강도를 추켜세워 본보기를 창조할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 어떻게되여 자강도를 본보기로 정할 결심을 하게 되였고 어떻게 자강도를 추켜세워 전국에 일반화해 나가는가 하는 것은 후세에 가서도 두고두고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자강도는 여러면에서 볼때 다른 도들보다 조건이 불리한 산간지대였습니다. 공업발전에 필요한 자원도, 또 농사지을 번듯한 포전도 별로 없는데다가 다른 지대와의 생산적 연계를 발전시킬 교통조건도 불리했습니다. 보이는 것은 산과 골짜기 뿐이였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궁벽한 산간지대 도를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결속하는데서 본보기로 내세울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왜 자강도를 고난의 행군, 강행군 결속의 본보기로 정할 결심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장군님의 숭고한 의도가 깃들어 있습니다. 자강도에는 우리 혁명의 강고했던 여러 시기에 그 난국을 뚫고 나가신 만경대 혁명일가분들과 백두산위인들의 혁명사적이 뜨겁게 어려있는 그런 성지들이 많은 고장입니다. 자강도에는 일찍이 김형직선생님께서 역사의 새벽길을 헤치시며 새기신 거룩한 발자취가 스며있고, 어버이수령님께서 어리신 나이에 배움의 천리길과 광복의 천리길에 남기신 혁명사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역사적인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하시고 반공격작전을 조직영도하신 곳도 바로 자강도였습니다. 한편 자강도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쟁의 불길속에서 승리할 내일을 내다보시고 마련해주신 희천공작기계종합공장을 비롯한 기계공업의 토대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자강도에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지어주신 무쇠마치를 틀어지고 온갖 애로와 난관을 헤치면서 혁명의 붉은기를 굳건히 지켜가는 혁명적 노동계급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난의 행군시기, 다른 지방사람들보다 고생을 더 했지만 쓰러지면서도 기대를 지키고 공장을 지켜냈습니다. 참으로 자강도 사람들은 강의한 의지를 지닌 시대의 선구자들이였고 어려울 때 사회주의를 지켜 당을 받드는 기수들이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바로 이 중요한 점들을 깊이 헤아려 보셨던 것입니다. 모든 조건이 다른 지대보다 더 어렵고 불리한 것이지만 혁명성이 강한 노동계급의 부대가 있는 자강도를 온 나라의 본보기로 내세운다면 그 감화력과 견인력은 대단히 클 것이였습니다. 바로 이로부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강도를 고난의 행군 결속의 본보기로 정하실 결심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자강도를 온 나라의 본보기로 내세우기 위한 사업을 어떻게 이끄시였는가 하는데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강도를 온 나라의 본보기로 내세우기 위한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중소형발전소 건설에서 자강도를 온 나라의 본보기가 되도록 이끌어 주신 이야기라든가, 지역적 특성에 맞게 농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자강도를 본보기로 내세우시기 위해서 자강도를 잠업을 전문으로 하는 ≪잠업도≫로 되도록 이끄신 이야기, 그리고 중요 공업부문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에서 자강도가 본보기가 되도록 이끄신 이야기를 비롯해서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강도를 온 나라의 본보기로 내세우기 위해서 바치신 영도의 자욱은 도안의 그 어느 부문에나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강성대국건설의 돌파구의 하나인 전기문제를 푸는데서 자강도가 온 나라의 본보기가 되도록 이끄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주체85(1996)년 9월 어느날이였습니다. 그 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도당책임일군에게 자강도를 본보기로 내세우시려고 하니 한번 일을 잘해보라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그 후에도 장군님께서는 중소형발전소를 자체 실정에 맞게 건설하도록 하시고 제기되는 문제를 다 풀어주시면서 이 사업에서 전국의 시범이 되도록 보살펴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6(1997)년에 들어와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자강도에 중소형발전소 건설정형을 요해하시고 해당한 대책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자강도 인민들은 자기들을 시대의 앞장에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을 심장에 새기고 혁명적 군인정신을 높이 발휘해서 6개월 남짓한 기간에 여러 가지 형식으로 된 29개의 중소형발전소를 새로 건설하거나 정비보강해서 많은 발전능력을 조성했습니다. 그리하여 자체로 생산한 전기로 170여개의 지방산업공장들을 돌리고, 2만 1,300여세대의 살림집 조명과 1,700여세대의 전기난방을 보장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강도에서 이룩된 성과를 두고 못내 기뻐하시면서 주체86(1997)년 9월, 당과 정부간부들이 자강도에 있는 중소형발전소들을 참관하도록 하셨습니다. 일군들을 자강도에 보내여 경험을 배우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 직접 본보기 단위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요해하시고 그것을 전국에 널리 일반화해 나갈 구상을 안으시고 자강도에 대한 역사적인 현지지도의 길에 나서시였습니다. 대소한 추위에 모든 것이 얼어붙고 사나운 눈보라에 열차마저 달리기 힘들어하던 주체87(1998)년 1월 16일, 장군님께서는 열차로 밤길을 달려 이른 아침에 자강도에 도착하시였습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의 첫 현지지도 대상은 강계시에 있는 북천띄우기식발전소였습니다. 물을 띄어놓은 띄우개들에 수차를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인데 장군님께서 도착하시였을때, 다섯 개의 둥그런 수차가 돌아가면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였습니다. 그처럼 사나운 칼바람이 하도 세차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께 강기슭에 오래 서 계시지 말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시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웃음어린 눈길로 일군들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이 추운 날에 이곳에 왜 왔는지 압니까, 갈수기이고 강이 얼어붙은 겨울에도 발전기가 잘 돌아가는가를 보자고 왔습니다 라고 하시며 강을 뒤덮은 얼음의 두께와 그 밑으로 흐르는 물량, 그리고 최대 갈수기 때의 전기생산량을 구체적으로 요해하시고 띄우개에 달라붙은 얼음까지 주의 깊게 살펴보셨습니다. 북천띄우개식발전소를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연이어 장강1호발전소와 2호발전소, 토목식온재발전소, 53동의 살림집 마을, 도농촌경영위원회 관계건설사업소에서 만든 발전설비, 장자산발전소를 돌아보시고 점심 시간이 퍽 지나서야 열차숙소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점심식사를 마치시고 현지지도의 길을 또다시 이어가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는 함박눈이 쏟아지는 그 다음날에도 이른 새벽부터 계속되였습니다. 그날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성강군의 남리발전소와 대중발전소를 비롯하여 예견된 대상을 다 돌아보셨습니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계에 도착하시여 도안의 일군들을 부르시고 자강도 인민들이 어려운 고생을 하면서도 당이 준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한데 대해서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앞으로 더 가해야할 과업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강도 사람들처럼 이악하게 달라붙어 투쟁하면 경제사업과 인민생활에서 반드시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시면서 온 나라가 자강도의 모범을 본받아 중소형발전소 건설을 대대적으로 벌리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되어 자강도가 중소형발전소 건설에서 온 나라의 본보기로 내세워지게 되었고, 전국의 이르는 곳마다에 수많은 중소형발전소들이 건설되는 새로운 현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자강도에 대한 역사적인 현지지도의 자욱을 새기신 때로부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6년 기간, 자강도를 8차례나 찾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강도를 찾으실 때마다 그동안 많은 일을 해놓았다고 자신께서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당과 생사운명을 같이하려는 정신이 꽉 들어찬 자강도 인민들을 볼때마다 큰 힘을 얻게 된다고 높이 평가해 주시면서 온 나라 전체인민이 자강도 사람들의 정신세계와 투쟁기풍을 본받도록 불러일으키셨습니다. 강계정신은 바로 이렇게 되여 창조되게 되었고, 그것이 사회주의 조선의 시대정신으로, 강성대국건설의 위력한 사상정신적 추동력으로 나래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강계정신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강계정신이란 수령결사옹위정신, 당의 노선과 정책에 대한 결사관철의 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 혁명적 낙관주의 정신입니다. 이러한 강계정신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은 수령결사옹위정신이며 그것은 강계정신이 안고있는 모든 내용을 규제하는 근본정신입니다. 강계정신은 혁명적 군인정신에 뿌리는 두고 있는 정신입니다. 강계정신은 우리 인민군대에서 발휘되고 있는 혁명적 군인정신이 사회에 일반화되는 과정에 창조된 정신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강계정신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가 낳은 새로운 시대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사회주의의 운명을 판갈이 하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에 오직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사회주의를 결사고수할 각오를 안고 산악같이 일어섰던 자강도 인민들의 높은 투쟁정신은 20세기 영마루에서 강성대국을 향해서 돌진하는 **김일성**민족의 억센 기상이였습니다.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과 혁명적 대고조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강계정신은 오늘도 사회주의 경제강국건설을 다그치는 우리 공화국 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떠밀어 주는 원동력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사업을 조직영도하신데 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미연합훈련은 전면적 전쟁연습

시민사회단체, 훈련 당일 해상 시위 등 강행 예정

3월 21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될 한미연합연습(RSO&I/FE 02)에 대해 이북측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내 시민사회단체들도 대사관 앞 1인 단식시위를 벌이는 한편 훈련 당일 해상시위 등을 계획하고 있어 주목된다.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전국민중연대, 참여연대, 경실련 통일협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등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 소속 700여 시민사회단체들은 20일 낮 12시 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시 방한 반대투쟁의 연속선상에서 전쟁연습 반대 투쟁을 반전 반미 평화세력과 연대하여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규모 한미합동군사훈련은 필연적으로 이북의 대응훈련을 불러오는 등 부시 미국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이후 어느 때보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위기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실시되는 대규모의 군사훈련이기에 그 위험성은 심각하다≫면서 ≪이번 훈련은 교착된 남북관계를 더욱 얼어붙게 하고, 6.15남북공동선언으로 이루어진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의 기회를 무산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들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저지하기 위해 19일부터 미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20일부터 한상렬상임고문(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도 7박8일간 같은 장소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또 부산, 진해 등에서 병력이 들어올 때를 기해 해상시위를 벌이는 한편 매향리 훈련장에서도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이밖에도 이들은 오는 23일 종묘공원에서 대규모 대중집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공희정기자
오마이뉴스 2002/03/20

RSOI와 FE

연합전시증원(RSOI)연습

연합전시증원(RSOI)연습은 한·미 연합사 주관 하에 전시 한반도에 증원될 미 증원군의 수용, 대기, 전방이동 및 통합절차와 이를 지원하는 한국군의 전시지원, 상호군수지원, 동원, 연합후방지역조정관(CRAC)임무, 전투력 복원절차 등을 컴퓨터 모의를 통해 실시하는 지휘소 연습이다. 연합전시증원연습은 1994년부터 연례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한국군은 국방부, 합참, 각군본부, 작전사급 부대가 참가하고, 미군은 연합군 사령부와 주한미군 사령부, 미 증원부대 등이 참가한다.

독수리(FE)연습

독수리 연습(FE : Foal Eagle)은 한반도에서 전쟁억제를 위해 한·미간의 군사적 결의를 과시하고 연합 및 합동작전태세 완비를 위해 1961년부터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연합·합동 야외기동 연습이다. 1999년의 독수리 연습은 한반도 내 한·미 양국군과 미국 본토로부터 전개되는 증원전력, 연습지역내 행정관서와 예비군이 참가하여 실시하였다. 이 연습은 후방지역에 이북의 특수전부대가 침투하는 것에 대비하는 연습으로 여단 쌍방 야외기동훈련, 연합상륙작전 연습이 중점적으로 실시되었다. 또한 연습기간 중 부산, 울산 광역시와 경남에서는 화랑훈련을 병행 실시하였고, 2부 연습간에는 군단급 야외기동훈련(FTX)과 한·미 해병대, 해·공군이 연합상륙작전을 실시하여 한·미 연합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켰다.

한편 이번 훈련은 해마다 별도로 진행돼온 연합전시증원연습(RSOI)과 독수리합동군사훈련(FE)이 통합된 것으로 주한미군 외에 미국 본토와 일본, 괌 등에 주둔중인 미군이 1만여 명이 참가하는 최대규모의 군사훈련이며 참가 연인원만도 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주한미군 연습과장인 크레이드 존슨 공군대령은 주한미군 소식지(Let s Go Together) 3월호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 ≪21일~27일 실시되는 한·미 연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연습은 다른 연합 연습과 마찬가지로 방어 위주의 훈련이며, 외부 침략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지휘소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연습을 통해 경험이 적은 젊은 군인들을 교육하고 선임 지휘관들의 의사결정 능력을 증진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면서 ≪상호작전의 호환성과 한미 양국의 연합 전투력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국적이 다른 2개국의 방어체계에 필수적인 연습≫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위험수위로 치닫게 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팀스피리트 훈련의 재개라고 할 만큼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정책 강화의 일대계기가 될 위험을 안고 있다≫면서 ≪한미연합사령부는 정례적인 방어훈련이라고 호도하고 있지만 전쟁상황을 전제로 한 전면적인 전쟁연습≫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김동진 국방은 부시 집안의 家臣

F-15K 전투기 도입반대 2차 집중투쟁

차세대 전투기 기종선정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실무협상을 앞두고 각계에서 정부와 미국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높다.

20일 오후 1시 반,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자통협), 사회당,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주최하는 ≪차세대 전투기(F-X) 도입 사업 중단, F-15K 전투기 도입반대를 위한 제2차 국방부 앞 집중 투쟁선포식≫이 열렸다.

이번 집중투쟁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1차 집중투쟁에 이어 오늘부터 29일까지 열릴 예정이며,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 반까지의 농성투쟁과 매일 오전 8-9시, 12-오후 1시, 오후 5-6시에 진행되는 1인 시위, 그리고 26일 낮 12시에 열리는 집회 등이 예정되어 있다.

만원권 지폐로 만든 F-15K

자통협 이형수 투쟁부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투쟁 선포식에서 임종철 평통사 공동대표는 ≪국방부가 문정현, 문규현 신부와 F-X사업의 비리를 폭로한 조 대령이 친인척이라는 사적관계를 문제 삼고 있지만 진실을 밝힌 사람을 잡아간 국방부가 진짜 문제≫라며 ≪국방부는 아직도 냉전시대의 의식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갇혀 있다≫고 비판했다.

임종철 공동대표는 ≪김동신 국방부장관은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인 아버지 때부터 가신과 같은 관계를 가져왔고, 한국 고위 정치인들이 미국에 갈 때마다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이 있다≫고 폭로하고 ≪김동신 국방장관이 제정신이 있다면 F-15K 구입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규엽 민주노동당 자주통일위원장은 ≪대규모 한미공동군사훈련은 한국민의 반미투쟁이 활화산처럼 터져 올라오니까 한국군 50만을 ≪얼차려≫시키는 것이고 사실은 김대중대통령을 ≪얼차려≫시키는 것≫이라고 비유하고 F-X사업과 관련해 ≪김대중대통령이 뭔가에 가위눌려 있는데 이부영의원 등의 조정안을 못 받는 것으로 봐서 미국과 이미 약속을 했고 요만큼의 권한도 없는 모양이다≫고 비꼬았다.

≪이달말 F15K로 기종선정을 확정하고 미군기지 조정도 할 예정인데 용산미군기지 반환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고 아파트와 고가도로 신설만 확정되어 있다≫며 집중투쟁기간 열심히 투쟁하자고 다짐했다.

이날 집회와 함께 진행된 국방부 정문 앞 1인 시위에 나선 정혜열(68, 여) 평통사 회원은 ≪F-15K가 들어오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반문하며 ≪딴나라의 전쟁위협도 아닌 우리 동족끼리의 전쟁을 위해 무기도입을 하는 것은 당연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는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 실천단 연석회의≫에서 제9차 결의대회가 열렸다.

김치관기자
통일뉴스 2002/03/20

한총련을 찾아온 봄소식

한총련 합법화 사회인 대책위 발족

1997년 이후 이적단체 규정으로 수배와 구속의 추운 겨울을 지내왔던 한총련에게 오랜만에 따뜻한 봄소식이 전해졌다.

20일 오전 10시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는 사회각계 단체.인사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한총련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발족식 이 열렸다.

권오헌 대책위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젊은이들을 감옥으로 내모는 한총련 이적규정은 야만의 시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이적규정의 부당함을 강하게 주장했다.

또, 권오헌 상임대표는 ≪한총련 합법화를 위해 여러 인사들을 만났지만, 한 분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며 ≪시대적 요망인 한총련 합법화를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참가자들에게 호소했다.

이어 강위원 대책위 집행국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대법원을 통해 이적규정 판결을 받은 것은 5기 한총련뿐이지만, 검찰의 임의적인 법적용으로 10기에 이르는 지금까지 1254명의 한총련 학생이 구속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또, 강위원 집행국장은 ≪6년동안 대학생들을 끊임없이 전과자로 내몬 것은 우리 사회에 미래가 없다는 뜻≫이라며 ≪한총련 합법화가 대학생의 건강성을 찾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회각계 어르신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을 마쳤다.

함세웅 대책위 상임대표가 낭독한 발족선언문에서 대책위는 ≪한국의 청년학생들은 세계역사의 대표적 자랑이자 한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한총련 이적규정으로 한국의 대학생들은 구속과 수배의 고난의 길을 걷는 반역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총련에 대한 탄압을 비판했다.

대책위는 ≪부모된 심정, 선배된 마음으로 미래사회의 희망인 청년학생에 대한 탄압을 반대한다≫며 ≪이를 위해 범사회인 대책기구를 결성하고 한총련 합법화를 위해 우리 사회의 양심적 역량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발족선언문 낭독 후 윤경회 10기 한총련 대변인(홍익대학교 총학생회장)은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를 위해 한총련 스스로도 강령과 규약을 바꾸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한총련 합법화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선배, 어르신들께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대책위는 바로 이어진 한총련 대의원에 대한 구속 · 수배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10기 한총련의 합법활동 보장 △10기 한총련 대의원의 수배, 구속조치 반대 △97년 이후 한총련 대의원에 대한 수배조치 해제와 관련자 석방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를 정부당국에 요구했다.

오늘 발족한 한총련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는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각계단체 대표들이 고문과 상임 및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민변 17명의 변호사가 법률지원을 하며, 한총련 합법화의 취지에 동의하는 개인 625명이 대책위원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로써 인권유린과 국가보안법 남용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됐던 한총련 이적규정이 97년 이후 6년만에 해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총련 합법적 활동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원회

고 문: 권영길, 김금수, 김진균, 박용길, 박정기, 백기완, 변정수, 손장래, 신창균, 이기형, 이돈명, 이종린, 임기란 등 13명

상임대표: 강만길, 권오헌, 김동완, 오종렬, 청화, 함세웅, 홍근수 등 7명

공동대표: 74명

공동집행위원장: 정진우(종협), 한충목(전국연합)

법률지원단: 김동균, 김석연, 김선수 김승교, 김인회, 백승헌, 심재환, 유효석, 윤기원, 이덕우, 이상호, 이석태, 이정희, 이현용, 임재철, 장경욱, 정연순 변호사 등 17명

집행국: 강위원(국장)등

대책위원 : 총 625명

장동렬기자
통일뉴스 2002/03/20

국정원 해체! 국가보안법 철폐! 통신검열 반대!

통일로가는길 - 이재윤회원 석방대책위 성명서

3월 19일 오전 9시경 천안지역 민간통일운동단체 ≪통일로 가는 길≫의 회원인 이재윤 (광고기획업, 38세)씨가 국가정보원에 의해 연행되었다. 연행 사유는 이재윤씨가 ≪이북사랑≫, ≪통일로 가는 길≫ 이라는 인터넷 카페에서 회원들간에 의견을 주고받으며 올린 글이 북을 찬양 고무한 것으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이다. 국정원은 이재윤씨의 자택은 물론 사무실 등에 압수수색을 벌여 ≪통일로 가는 길≫ 회의자료 등 순수한 단체활동을 위한 자료들까지도 압수해갔다. 현재 연행되어간 이재윤씨는 국정원 본원(서울)에서 조사 받고 있다.

천안지역에 뿌리를 두고 지역 민들의 통일의 의지를 담아 민간차원의 통일운동을 벌이고 있는 ≪통일로 가는 길≫회원에 대한 연행과 회의자료 압수는 민간 통일운동의 탄압이며 명백한 6.15공동선언 위반행위이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남과 북의 수많은 이들이 금강산과 평양에서 얼굴을 맞대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위해주며 통일을 하자고 하였다. 통일을 하기 위해 서로를 위해주고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윤씨가 인터넷상에 올린 글이 이북을 고무 찬양한다고 해서 연행해간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작태임이 분명하다.

부시가 이북을 자극하며 전쟁놀음에 미쳐있는 이 때, 곧 있으면 한미전시증원훈련 (RSOI)이라는 전쟁연습이 21일부터 진행된다. 이는 결국 6.15공동선언을 폐기처분 하고 한반도에 다시 먹구름을 몰고 오고자 하는 미국과 미치광이 부시의 의도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민족끼리 통일하자≫고 하며 한반도에서 전쟁과 반통일적인 행위 일체를 거부하는 7천만 민족전체는 민족의 힘으로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고,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을 이루려는 노력들로 모두 분주하다. ≪통일로 가는 길≫도 천안지역에서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으며 6.15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갖가지 사업들을 벌이고 있었다. 그런데 국정원은 한 회원을 국가보안법으로 걸고들며 ≪통일로 가는 길≫이라는 단체에 대한 색깔을 흐리게 하고 민간차원의 통일운동을 탄압하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분단독재의 찌꺼기를 먹고살던 안기부가 국민의 정부에 와서 국정원으로 바뀌었지만 그 속성은 아직도 바뀌지 않았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민족의 평화와 통일은 아랑곳하지 않고, 현재 한반도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기운에 빌붙어 언제라도 한국의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이들에 대한 탄압을 자행함으로써, 부시와 미국의 의도대로 한반도의 통일을 가로막는 일에 충실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통신상에서 서로간의 자유로운 토론을 검열하며 구시대의 반통일, 반인권 악법인 국가보안법으로 이재윤씨의 생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인권탄압 이다. 때문에 국정원이 이미 사문화 되어있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연행한 것은 분명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마저 가로막는 반인권적 범죄행위며,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사상, 양심의 자유를 가로막는 위헌 행위이다.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 이후 남과 북의 노동자, 농민, 학생, 문학인, 종교인 등 자기 계급 계층별 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경의선 복원사업을 통해 육로가 개방되려는 지금 시기에 이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인터넷에 올라온 개인의 정견을 탄압하는 것은 시대적 착오이며, 분단의 세기를 넘어 자주와 평화통일의 역사에 역행하는 것이다. 즉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국정원의 이번 작태는 이재윤씨의 기본권에 대한 탄압이자,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이며 6.15 공동선언이후 조성된 통일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반통일적 행각인 것이다.

지금 당장 국정원은 이재윤씨을 석방하고 통일의 역사에 역행하는 반인권, 반통일적 범죄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무릎꿇고 사죄해야 한다. 나아가 남과 북이 민족의 실리를 추구하며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국가보안법을 철폐되어야 하고, 정권의 하수인으로 반통일 행각을 일삼는 국정원은 해체되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진정 이 땅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고 우리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이 다가올 것이다.

우리는 정보검열에 의한 인권침해 반대,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 철폐,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적 폭압기구인 국가정보원 해체와 이재윤씨 석방을 위해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모든 노력과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2002년 3월 20일
이재윤 석방대책위

노무현 20% 이상 격차로 이회창 눌러

노무현 52%-이회창 34%

최근 민주당 대선 경선주자인 노무현 후보가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를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노 후보가 이 총재와의 가상대결에서 그 격차를 무려 18%로 벌렸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또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노무현 후보가 이인제 후보를 큰 격차로 앞섰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SBS는 조사 결과가 19일 열린 ≪정치권의 이벤트≫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방을 결정했다.

이와관련 SBS 허원재 정치부장은 ≪(여론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19일) 한화갑 고문이 전격적으로 사퇴해 민주당 내 대선 구도가 바뀌었고, 이회창 총재도 당에서 2선으로 물러나는 등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중요한 이벤트가 발생했는데 이것이 여론조사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내부자료로만 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부에서 제기되는 ≪외압설≫로 인한 불방 의혹에 대해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순수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일축한 뒤 ≪조사 결과도 밝힐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무현 고문측과 네티즌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노 고문측의 한 관계자는 ≪18일 오후와 19일 오전 SBS의 한 기자가 ≪우리 여론조사에서 노 후보가 크게 앞섰다≫면서 구체적인 수치를 전해왔다≫면서 ≪그러나 19일 밤 방송할 것이라는 애초의 방침과는 달리 방송을 하지 않겠다고 해 그 까닭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SBS 불방 소식이 19일 오후 늦게 알려지자 일부 네티즌들은 ≪방송사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고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SBS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TNS≫에 의뢰해 민주당 대전 경선이 끝난 17일 저녁부터 18일 오후까지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 가상대결≫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결과 대선후보 가상대결에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주자인 노무현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52.1%로 나타나 34.5%를 얻은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를 무려 18%나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회창 총재가 이인제 후보와의 가상대결에서 44.8%대 39.8%로 5% 정도 앞선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노무현 후보(47.5%)는 이인제 후보(25.1%)를 큰 격차로 따돌렸다.

≪이회창 · 노무현 · 박근혜≫ 3자 대결에서도 각각 ≪30.7 : 39.4 : 21(%)≫로 노무현 후보가 이회창 총재 · 박근혜 의원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회창 · 이인제 · 박근혜≫의 가상대결에서는 ≪34.5 : 27.7 : 26.3(%)≫으로 이회창 총재가 앞섰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노무현 후보가 연이어 이회창 총재를 앞서기는 했지만 모두 오차범위 내였다. 따라서 노 후보가 이번 조사에서 이 총재를 무려 18% 차이로 크게 앞선 것은 지난 16일 광주 경선에서의 노 후보의 승리가 ≪지역감정 극복≫이라는 대의명분을 얻으면서 지지도가 급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노 고문이 당내 경선주자인 이인제 고문을 앞선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이회창 총재가 연이어 노 후보에게 밀리는 것은 최근 불거진 이 총재의 ≪호화빌라≫ 문제와 ≪손녀 국적≫ 문제, 그리고 한나라당 내의 내분과 비주류의 이회창 총재 비판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여론조사 결과 - 노무현 고문, 이회창 총재보다 20% 이상 앞서 박근혜와 3자구도 때는 ≪노-이≫ 10% 이상 격차

SBS가 ≪너무 큰 격차≫를 이유로 이회창-노무현 대결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중앙일보≫가 21일 발표할 여론조사에서도 큰 격차로 노무현 고문이 이회창 총재를 누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18일 SBS와 TN소프레스에서 조사한 ≪대선후보 가상대결≫에서 노무현 민주당 고문이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보다 18% 가량 앞서는 결과가 나온 데 이어, 내일자(21일)에 보도될 ≪중앙일보≫ 대선후보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노 고문이 이 총재를 20% 이상 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 ≪이회창-노무현-박근혜≫ 3자 대결에서도 노 고문은 이 총재보다 10% 이상 앞서 SBS 조사 때보다 더욱 큰 차이로 이 총재를 따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21일자에 게재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일보≫ 등 다른 언론사들도 조만간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계획이다.

최경준/이한기기자
오마이뉴스 2002/03/19

위기맞은 ≪이회창 대세론≫

한때 철옹성같던 ≪이회창 대세론≫이 잇단 악재(惡材)로 휘청거리고 있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고문의 ≪질주≫와 대비되며 지지도가 급락세를 보이자 ≪대세론은 거품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심지어 한나라당 내부에서 조차 ≪이총재가 저러면 안되는데...≫라는 장탄식들이 쏟아지고 있다.

당 주변에서는 ≪이총재 위기론≫의 근본 원인이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소극적 자세 △최대 지지기반인 영남권의 동요 △감동을 주는 정치의 부재 △주류.비주류간 불협화에 따른 당에너지 분산 △이 총재의 포용력 부족 △일부 측근 및 강경파들의 독주 등이 어우러진 결과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함께 민심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그 흐름에 순응하는 탄력적인 자세가 결여돼 있는 것이 한계를 노출하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 총재가 당초 총재직 불출마 쪽으로 결심을 굳혔다가 일부 보수 ≪매파≫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따라 ≪U턴≫했다는 소문이 나오는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

특히 민주당 국민경선에서 영남권 출신인 노 고문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한나라당의 지지기반인 영남권이 동요하고 있는 것은 심상치 않은 조짐이다.

박근혜(朴槿惠) 의원의 탈당으로 T.K(대구.경북) 의원들이 술렁거리고 있고, 상도동의 이상 기류와 강삼재(姜三載) 의원의 부총재 사퇴 등으로 P.K(부산.경남) 의원들도 동요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이 총재 비판에 앞장섰던 김만제(金滿堤) 의원은 이미 당에서 마음이 멀어져 있고 몇몇 의원들은 이 총재와 일부 측근들의 ≪제왕적 행태≫에 반발,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경북출신의 한 재선의원은 20일 ≪T.K 지역에서 박근혜라는 대안이 생기면서 현역 의원들은 물론 기초단체장들도 동요하고 있다≫면서 ≪김만제 의원 등이 깃발을 드는 순간 영남권 전체의 동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부산지역 중진의원도 ≪노 고문이 대선전략 차원에서 P.K지역을 집중 공략하지 않겠느냐≫면서 ≪앞으로 이 총재는 노 고문으로부터 ≪영남권 적자≫ 공세에 휘말릴게 분명하며 ≪반 DJ≫ 기류에 편승, 반사이익만 누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상황속에서 지난 97년 대선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총재가 현재의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 지 당내외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조복래기자
연합뉴스 2002/03/20

미 AP통신사 등 ≪아리랑≫ 공연 연습 참관

미국 AP통신사 자회사인 APTV 런던본부 제작국장과 호주 고찰단 및 러시아 제1차 고찰단이 19일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공연연습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TV가 20일 보도했다.

최근 북미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언론을 대표하는 AP통신 관계자가 ≪아리랑≫ 공연 연습을 참관한 것은 이례적이다.

조선중앙TV는 이날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 인류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 속에 최고 걸작으로 공연될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며 19일 ≪5월1일 경기장≫을 다녀간 미국과 러시아 및 호주의 ≪아리랑 고찰단(시찰단)≫의 반응을 전했다.

호주 고찰단 단장 그레고리 오코노 씨는 ≪아리랑 공연은 훌륭하다고 밖에 더 달리는 할 말이 없다. 과거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보았는데 이처럼 희안한 공연은 난생 처음 봤다≫고 말한 것으로 이 TV는 전했다.

그는 또 ≪현재 20-30개 단체의 참관이 확정됐으며 이미 지난 6월에 비행기 좌석표를 예약했다≫며 ≪영국 프랑스 오스트랄리아를 비롯한 많은 나라 인민들이 평양을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 연합통신 텔레비전 보도회사(APTV) 런던본부 프로제작국장 나이제 베이커 씨는 ≪오늘 평양을 방문하여 이처럼 훌륭한 경기장에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아리랑 공연을 보게된데 대해서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비록 연습중에 있는 3개의 장면을 보았지만 이것만 보아도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규모와 황홀감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어 ≪이처럼 한사람같이 움직이는 조직력은 단결된 조선 인민만이 발휘할 수 있다≫며 ≪전 미 국무장관 매들린 올브라이트가 이전에 평양에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보면서 배경대가 컴퓨터의 조작이 아닌가 하고 의문을 표했다는데,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말한 것으로 조선중앙TV는 보도했다.

아리랑 공연과 관련해 중국 홍콩 · 마카오 관광시찰단이 지난 7일 ≪5월1일 경기장≫을 돌아본데 이어 러시아의 제1차 관광시찰단은 지난 14일 방북했으며 일본의 제1차 ≪아리랑≫ 관광고찰단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고찰단, 취재진들도 곧 평양에 도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진욱기자
연합뉴스 2002/03/20

전체 청년학생운동대오의 통일단결에 대하여 (3)

≪**사회자 :** 그러면 백만학생대중의 조직적 결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지 그에 관해 생각되는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죠.

김현규 : 그에 관해서는 많은 걸 얘기할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무엇보다도 한총련의 기층조직들을 튼튼히 꾸려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운동의 기층조직들인 과, 단과대학생회들과 동아리들을 명실공히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전투적이고 민주주의적인 학생대중조직으로 되게 해야하고 전투적이고 기백있는 조직으로 만드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사회자 : 그리고 말이죠. 학생대중의 조직적 결속을 이루자면 학생운동내부의 분열현상을 하루빨리 극복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고 보는데요.

김현규 : 네, 그렇습니다. 학생운동핵심들은 주체의 변혁운동이론으로 학생들을 더욱 철저히 정신무장하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상통일, 이념통일, 조직통일을 시급히 이뤄내는데 주되는 힘을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생운동의 조직력과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온갖 분파주의적 경향과 요소들에 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말고 철저히 짓뭉개버려야 할겁니다. 그러자면 청년학생들이 단결하면서 투쟁하고 투쟁하면서 단결하는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생운동조직들은 의견상이는 뒤로 미루고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하나로 굳게 단결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투쟁에서 공동의 투쟁목표를 제기하고 함께 투쟁을 벌여나가며 이 과정에 신뢰를 확고히 하고 단합을 이룩해야 합니다.

사회자 : 오늘 학생운동대오의 조직적 결속을 이루려면 한총련을 중심으로 해서 백만학도가 굳건한 단결을 실현해야하죠. 왜냐하면 한총련이야말로 시대와 민중의 지향과 백만학도의 의사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는 청년학생들의 대표조직이기 때문이죠.

김현규 : 네, 그렇습니다. 한총련은 명실공히 학생운동의 사령탑, 백만학도의 결집체입니다. 지금 청년학생들을 비롯해서 각계민중이 한총련을 겨레의 희망으로 찬양하며 그에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보내고 있는 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총련은 백만학도의 조직적 결속의 구심체로써의 자기의 중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면 조직체계를 더욱 완비하고 특히는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모든 학생운동단체들과 조직적 단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법적 공간을 최대한 이용해서 사회의 민주화와 반미자주화, 조국통일투쟁을 벌여나가는 것을 국민, 학생대중의 정서와 감정에 걸맞는 올바른 투쟁전술과 방법들을 창출, 구사해나가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와 함께 청년학생들은 사상이나 주의주장의 차이를 초월해서 한총련의 깃발아래 굳게 뭉쳐 단합된 힘으로 싸워 나가야 합니다.≫(조직력강화에 박차를 가하자, 구국의소리 2001 12 2 – 8)

≪**윤정원 :** 옳은 지적이십니다. 학생운동조직이 대중조직답게 큰그릇을 가지고 광범위한 학생대중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결함도 일부 나타나고 있어요. 좀더 아량을 가지고 학생들을 포섭해야겠는데 노선와 지향문제에서 조금만 의견차이가 있어도 상대방을 배척하고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현상이 그 대표적 사례라 하겠죠.

사회자 : 일부 핵심운동가들의 이같은 편협한 사업작풍은 대오의 단합에 적지않은 지장을 주고 있죠. 학생운동조직은 이런 경직된 운영방식을 하루빨리 없애고 중앙집권적 규율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민주주의를 잘 발양시켜야한다고 봅니다.

윤정원 : 그러자면 관료주의적인 사업방법과 작풍을 없애야하는데요. 학생운동 핵심성원들은 향기를 풍겨 나비와 벌들이 날아드는 꽃처럼 뜨거운 인정미를 가지고 학생들을 따뜻이 대하며 특히 주의주장이 좀 다르다고해서 배척하거나 따돌리지 말고 능숙하게 포섭해서 광범위한 대중을 모두 학생조직에 굳게 결집시켜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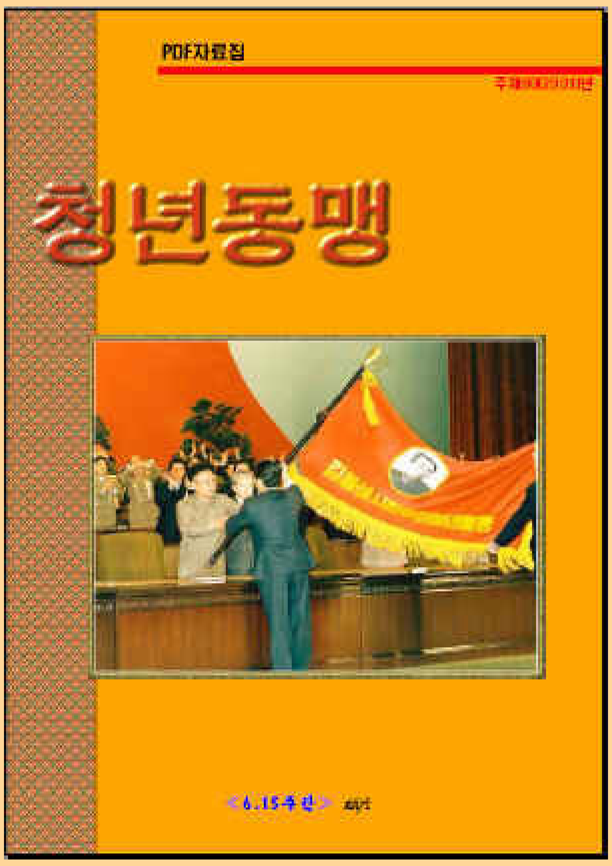
사회자 : 학생운동을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산조직으로 만들자면 그에 걸맞게 조직체계를 잘 꾸려야하죠.

➡

광고

PDF자료집

청년동맹



노작
공청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과업에 대해
민주청년동맹을 조직할 데 대하여
현 시대와 청년들의 임무
김일성동지의 청년운동사상과 영도적 업적을 빛내어 나가자

세기와 더불어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공청의 산아들

주체사상총서(9권)
사회주의단계에서의 청년조직의 임무

정치사전
반제청년동맹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조선반일청년동맹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세계민주청년련맹

조선중앙통신

한국민족민주전선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한국청년전위의 임무
6.15공동선언실현을 위한 청년주체주의자들의 맹약
경애하는 **김일성** 주석님의 서거 7주기를 맞이하며
21세기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께
주체의 청년운동은 위대한 영도따라 승리의 한길로 나아간다

전환기 학생운동의 방향성
80년대 –변혁적 민주주의의 시대
90년대 –자기 혁신 모색의 시대

윤정원 : 그럼요. 조직을 대중운동조직답게 튼튼히 꾸려야 대중속에 뿌리박을수 있고 따라서 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시켜 나갈수 있습니다. 학생운동조직을 튼튼히 꾸리자면 광범위한 학생대중을 망라할수 있게 조직을 내오고 학생들을 직접 대하는 일선조직을 강화하는게 중요하죠. 그러자면 능력있고 애국심이 높으며 작풍이 좋은 그리고 대중성이 강하고 학생들속에서 신망이 높은 학생들로 학생회를 꾸리는 것과 함께 일사분란한 조직체계와 사업체계를 확고히 세워야 할겁니다.≫(대중속에 뿌리박은 산조직으로 되려면, 구국의소리 2002 1 27 – 2 3)

≪**김현규 :** . . . 청년학생들은 이와 함께 새해에 학생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을 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변화된 정세의 요구에도 부응하고 또 대중의 사상의식수준과 감정, 정서에도 걸맞는 참신한 투쟁형식과 방법도 개발하고 학생운동대오의 단합을 이룩하며 조직체계도 정비하고 개편, 완비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 그리고 말이죠. 청년학생들은 방학기간에 자신을 정신무장하기 위한데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몇해동안 학생운동에 대한 당국의 탄압책동으로 일부학생들 속에서는 투쟁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동요하는 현상이 있는가하면 운동권일각에서 표현되고 있는 분파주의, 관료주의현상도 바로 청년학생들의 준비정도가 부족한 데도 주요한 원인의 하나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극복하는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

사회자 : 청년학생들은 대학 총학생회장선거가 진행된데 걸맞게 조직을 일사분란하게 정비하고 투쟁계획도 잘 세울 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청년학생들을 투쟁의 장으로 견인해내기 위한 방법론도 견지해야 하겠죠. 이렇게 청년학생들은 방학기간에 학생운동의 발전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새해엔 학생운동조직이 보다 새로운 성숙된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는데 적극 기여해야 할겁니다. 그럼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방학을 맞는 학생들에게, 구국의소리 2002 2 19 – 21)

＊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한국의 청년전위들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일찍이 반일청년동맹과 민주청년동맹을 건설하시면서 보여주시었던 위대한 통일단결의 모범을 오늘에 구현하여 학생운동권, 청년운동권의 고질적인 분열상을 극복하고 제 정파를 변혁적 원칙하에 대통합시킴으로써 학생운동, 청년운동의 주체역량을 비약적으로 강화하고 운동의 일대 상승국면을 창출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학생운동권은 그 갈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분열되어 있고 저조한 선거참여율이나 집회시위참가수가 말해주듯이 매우 침체되어 있어 변혁운동의 선봉대, 주력군으로서의 제 역할을 옳게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백만학도의 유일적 대표체라고 하는 한총련의 지난 수년간은 ≪한총련비선분파≫의 분파주의로 인하여 투쟁하는 민중민주계열은 말할 것도 없고 ≪고난의 행군≫길을 함께 걸어온 같은 민족해방계열마저도 개량주의니 절충주의니 하는 딱지와 함께 분리배격해 온 분열의 역사라는 비판이 결코 지나치지 않다.

한총련은 전위조직이 아니라 대중조직이며 단결의 기준은 변혁이냐 반변혁이냐이지 민족해방계열이냐 비민족해방계열이냐가 아니다. 헌데 지난 기간 한총련 중앙과 지역총련의 구성면면이나 공동집회, 공동투쟁의 양상을 보면 이 당연한 원칙이 관철되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청년전위들은 한총련을 사실상 일개 분파, 정파의 소유물로 전락시킨 파행성을 극복하고 ≪반미구국노선대≫나 경인총련과 같이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민족해방계열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와 진보, 반제와 통일을 지향하는 민중민주계열도 광폭적으로 포괄하는 참된 의미의 통일적 학생운동조직을 건설하여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와 자주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학생운동권을 망라하고 광범한 학생대중에 기반하는 광폭적인 통일적 학생운동조직의 건설은 투쟁의 역사성에서나, 강령, 규약의 변혁성에서나, 규모와 체계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우월한 한총련이 주체세력이 되어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총련은 통합과정에서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수렴할 것을 수렴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노숙한 통일전선사업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청년전위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김대중집권자와의 대단합을 통해 보여주신 상층통일전선의 위대한 모범을 학생운동권의 대단합에 구현하여 한총련을 광폭적인 통일적 학생운동조직으로 전화발전시키는 사업을 적극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청년전위들은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을 통하여 한총련의 합법화를 위한 객관적 조건을 마련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한총련을 광폭적인 통일적 학생운동조직으로 전화발전시켜 그 대중적 지반을 비약적으로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이적규정≫의 무력화와 학생운동의 대중화라는 절박한 당면과제를 주동적으로 실현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한국청년전위의 임무,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2001 1 20)

(끝)

통일여명 편집위원 한철규 발췌 (편집국 보도 63호)

하나 민족도 나

조국통일3대헌장

민족대단결과 그 구심점 (6)

김일성주석과 민족대단결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비서께서는 또한 문무를 겸비한 비범한 령도력으로 조선식 사회주의를 훌륭히 건설하고 굳건히 지켜나가시는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시고 사회주의수호의 맹장이시다. 령도자의 조직적 수완과 정치의 비결은 결국 혁명의 주체를 어떻게 강화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분께서 시행하시는 정치의 비결이자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인민대중에 대한 믿음은 광폭정치로 구현되고 인민대중에 대한 사랑은 인덕정치로 구현되고 있는데 광폭정치와 인덕정치는 이민위천의 리념을 구현한 정치로서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고 그것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주체사상에 그 철학적 기초를 두고 있다.

김정일비서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성공여부는 그 담당자로서의 주체를 어떻게 마련하는가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것을 최고령도자로서의 수령과 정치적 참모부로서의 당 그리도 자주위업의 담당지인 인민대중이 3위1체로 일심단결된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는 문제로 보시고 그것을 공고하게 이룩해내신 것이다. 이 일심단결(一心團結)은 구조상에서는 수령을 중심으로 하나의 사상의지로 결합되고 조직적으로 결속되고 의리적으로 결집된 전일체이다. 전체 인민대중을 수령의 두리에 이렇게 튼튼히 결속시킨다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김정일비서께서는 **김일성**주석의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할 데 대한 요구를 제기하시고 사람도 사회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해나가셨으며 당을 수령을 중심으로 인민대중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하게 결합시키는 주체형의 강력한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인민대중속에 혁명적 수령관을 확고히 심어주어 그들이 수령을 친어버이로, 정치적 생명의 모체로 여기로 자기의 모든 운명을 의탁하고 따르며 충실성(忠實性)을 신념화, 량심화, 도덕화, 생활화해나가도록 하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비서께서 마련하신 이러한 일심단결과 그 분께서 지니신 명장다운 의지와 담력, 뛰여난 령군술은 공화국북반부에서의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근본저력으로, 오늘 복잡한 국제정치정세속에서도 사회주의를 끝까지 옹호고수해나가는 원천으로 되고 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비서께서 지니신 권위는 또한 진보적 인류의 단결을 실현해 나가는데서 부딪치는 난관을 극복하고 자주위업의 진로를 열어 나가시는 경륜에 바탕하여 형성된 권위이다.

김정일비서께서는 일찍이 혁명활동의 첫시기부터 제국주의자들과 수정주의, 기회주의자들의 책동을 반대하고 사회주의위업과 진보적 인류의 자주위업실현을 리론, 실천적으로 옹호고수하여 투쟁하시는 과정에 국제사회에서 반제자주위업의 기수로서의 높은 권위를 지니셨다. 그 분의 이러한 권위는 80년대후반기 제국주의자들의 평화적이행전략과 현대사회민주주의자들의 배신행위가 결합되면서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는 것과 같은 복잡한 상황에서 제국주의자들과 수정주의자들을 반대하고 공화국의 존엄과 사회주의위업의 옹호고수를 위한 투쟁을 통해 급상승되였다. (계속)